

문대통령 “상생형 지역 일자리, 경제 성공전략으로 키우겠다”

외우기만 하는 공부나라를 망친다.

광주형 일자리 결실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식 참석 “광주형 일자리, 우리 경제 새로운 균형 찾기 위한 도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성공 전략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창의적인 일자리 사업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광주형 일자리’의

구체적인 결실이다. 경사노위의 3차례 원탁회의 등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모델로, 광주지역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 이후 상생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이끈 기폭제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행사 참석에 대해 청와대는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참석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광주형 일자리 현장을 재방문함으로써 광주에서 첫걸음을



내년인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성공과 확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의 메시지가 전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최광수기자



질문이 곧 공부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다니면서 대한민국 학생들의 공부는 얼마나 암기를 잘하느냐에 따라 삶의 대우가 달라졌다. 한 마리의 용이 되기 위해 그 아름다운 시인들의 시도 감흥 없이 외웠다. 수학 문제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풀이 방법을 외워 풀었다. 미래가 펼쳐질 꿈을 키워야 할 우주를 보고 우리는 무조건 외워야 했다. 역사도 시대순을 외워야 했고 사건도 왜 발생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니 무조건 암기했다. 영어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문법을 모르면 영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르고 닳도록 외우고 또 외운 결과가 외국인 앞에 서면 입도 뻥긋 못하는 영어 울렁증을 양산해냈다. 한국 사람이 국문법을 모른다고 글 못 쓰고, 못 읽고 말 못 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리라 믿는다. 인공지능을 훈련해 늑대와 개를 구별하게 하고, 하얀 눈 속에 있는 늑대를 구별하게 했는데 늑대를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는 인지와 능력과 창의성을 통해 구별해낸다. 교육은 외우기만 해서 안 된다.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암기가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수십 개의 다양한 물체가 있다. 각각의 물체는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직육면체, 세모, 원통 같은 모양 등

공익·상생·경제성 빛난 ‘4월의 한국판뉴딜’ 4개 사례 선정

정부는 한국판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몇몇이 사자처럼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 초등학교, 나영준 엔지니어 대표이사, 제주시 환경면 두모리·금등리 등 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몇몇이사자처럼’은 한국판 뉴딜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케이 디지털 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정책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혁신훈련기관이다. 현재까지 서울대·카이스트·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등 세계 130여 개 대학 학생 8400여 명에게 프로그램을 교육했다. 그 결과, 몇몇이사자처럼 출신들이 주축이 된 자소설닷컴·탈인·윙잇·Bepro11 등 신생기업(스타트업)과 소방출동지도·메르스맵·코로나알리미·마스크알리미 등의 사업을 탄생시켰다. 몇몇이사자처럼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오는 9월까지 인공지능(AI) 전문가 360명도 배출한다. 이두희 대표는 ““몇몇이사자처럼”이라는 회사 이름을 ‘사자가 백수의 왕이니까 백수 중 왕이 되자’라는 생각에서 지었다”고 말했다. 심사를 담당한 이윤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

양성’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구현해 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엔지니어 나영준 대표이사는 한우를 공부한 소 박사, 공공데이터(축산물이력제)를 기반으로 ‘좋은 송아지를 골라 건강하게 소를 키우고,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과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들었다. 과거의 데이터(한우의 도체성적이나 젖소의 검정성적)와 현재 키우고 있는 가족의 데이터(유전적인 잠재능력)를 기반으로 최적 출하 시점과 농가의 육종 또는 사료배합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게 했다. 나영준 대표는 “출하 시점을 단 2개월 만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농가나 조합의 경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물을 키우면서 나오는 분뇨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탄소 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현 심사위원(독립운동가 자손, 임정기념사업회 이사)은 “공공과 민간이 상승효과(시너지)를 낸 좋은 사례”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는 전주 지역의 한옥마을 특성을 학교 공간에 반영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대표 사례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고 교실의 문을 창호로 제작해 공간 간 소통을 강화했다. 교실에는 정형화된 가구 대신 수납형, 육각형·마름모형 등 다양한 모양의

가구를 배치해 수업 방식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연구실 또한 모둠회의뿐만 아니라 각각의 공간에서 원격수업 등 개인적인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복도(마당)가 아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전체적으로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심사위원 석노기 영주대장간 장인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학교를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재구성했고,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제주시 환경면 두모리와 금등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인 ‘해상풍력 상생 모형’의 모범 사례다. 발전소 수익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리조트와 체험마을 등 마을의 수익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 소득원을 창출하고 풍력단지 주변에 관광객이 모이면서 주변 상권도 활력을 찾았으며, 발전소 건설·운영과정에서 창출한 4만 3000여 명의 고용 효과는 ‘덤’이다. 심사위원인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뉴딜 핵심 분야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 주요 장애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성과 제값도가 높

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4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을 통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 후보를 추천받은 후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서경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날치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 제작), 박민우 여행작가,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석노기 영주대장간 대표, 김동필 인공지능 전문기업 엘솔루 부사장,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틱톡 인플루언서 ‘듀자매(허영주·허정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9명이 참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4개 사례에 대해 그 의미를 담은 기념패를 전달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판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의 협력과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데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최광수기자



대구 월배역 그랜드원

서울시의회장상기 의원, 신임시장 눈치보느라 도시행정 마비

황운하 의원, 본말 전도와 흑색선전으로 여론을 호도 말라

공공재개발·재건축, 2040서울플랜 정립 차질없어야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다시 들쭉이 있는데 서울시 도시행정은 신임시장 눈치를 살피느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23일 도시재생실, 26일 주택건축본부, 27일 도시계획국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보고를 통해 연일 이같이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도시재생을 꼽았음에도 신임시장 취임 2주일이 지나도록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된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추진되는 보존 중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사업을 가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도시재생실은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전문가 간담회와 올해 초 신사업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거쳐 지난 2월에는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실효

성을 확보해 시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3월까지 신사업모델(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개발하고 4월부터는 구체화된 사업모델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2월 임시회에서 보고했다.

장상기 의원은 “시민과 시의회의 문제 제기로 지난 해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는데 보궐선거 전후로 진도가 멈춰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도시재생 미래방향 정

주민들 사이에는 공공이 부정을 저지르고 민간을 착취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반면 “시장이 바뀌었으니 민간이 하더라도 용적률이 완화되고 높이도 올라간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쭉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황된 주장에 의해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신임시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설명자료 한번 낸 적이 없다”고 개탄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이어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장상기 의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서울플랜에서 높이제한 35층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가로막아 도시경쟁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며 “년 10월부터 수립 중인 2040서울플랜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합의 속에 소모적인 높이 논쟁을 해소하고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낸 ‘문제 종합세트 문제적 의원’이라는 논평에 대해 “사안의 본질은 모든 검찰 문제가 응축된 검찰 문제 종합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는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있다”며 “선거법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적법한 과정을 거쳐 당선됐다. 제대로 공부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공무원 신분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채 피선거권을 위협받은 게 문제의 본질이다. 검찰 나팔수 역할을 그만두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표절 여부는 단순 인용 여부보다는 분석의 틀, 결론 도출의 독창성 등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당시 석사논문으로서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함부로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치는 도박이 아니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박하듯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검찰의 횡방으로 선거운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치신인에게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안고도 패배한 정치인이라면 무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이다. 그저 정치적 욕심에 눈이 멀어 있지도 않을 요행수나 바라면서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검찰이다. 사안의 본질은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권 남용에 있다”며 “검찰은 오랜기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왔고 급기야 고래고기 사건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나에 대한 표적수사를 일삼아 왔다. 마침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총선출마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다 실패하자, 당선 이후에는 집요하게 당선무효를 획책해왔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스스로 검찰 하수인을 자처하는 부끄러운 짓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울산 사건은 정상적이고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 것일 뿐 검찰이 주장하듯 청와대 하명은 커녕 간접적이든 암묵적이든 청와대와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날조된 공소장으로 기소를 강행했다. 다행히 선거법이 검찰의 집요한 방해로 넘어서며 마침내 승리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지역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과 관련된 캠프 관계자에 대해서는 “전주지법 이원택 국회의원 사건과 광주지법 윤준병 국회의원 사건도 이와 관련 ‘면소’ 판결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가 신설되며 전화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허용됐으므로 당연히 경선운동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저급한 정치인들의 품격 없는 정치에 대응할 시간은 없지만 근거 없는 비난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모독하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절박한 고통은 외면한 채 수십 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국힘당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단 하루라도 민생문제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 1인 시위

도민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인 기흥호수, 온전히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이 2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평택시사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반대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김용찬 의원은 공사 직원들의 출근길에 맞춰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가 적힌 팻말을 들고, 기흥호수가 경기도민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시대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기흥호수는 도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도민이 누릴 공익적 가치를 생각

해 도민들에게 기흥호수를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본래 기흥호수 2.58km의 규모로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농업용수의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고 용인·수원·화성 등 인접한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경기도와 용인시가 둘레길을 조성하였으나 호수 남측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이 호수로의 접근을 막고 있어 도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현재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의 허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용인시의회와 연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 심의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할 방침이다.

최근수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노원구, 산후도우미 비용 부담 확 낮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전액 구비로 지원

서울 노원구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구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표준형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으로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등),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35만 5000원에서 최고 129만 7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후 이용을 완료한 가구이며, 영아의 출생 전부터 환급 신청

시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다. 또 영아의 출생신고는 노원구에 등록된 가구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구는 신청기간 내 6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신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해야 하며,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산후도우미 이용계약서, 제공 기록지,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명의 통장사본이며,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 입금된다.

한편 구는 임신·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최적의 아기 맞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신생아 출산 가정을 위한 간호사 방문서비스와 집먼지 진드기 제거, 공간 살균, 해충방제까지 제공하는 아기 맞이 클린하우스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임산부 1,353명에게는 연 41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 태아와 산모의 영양관리를 책임진다.



또한 노원구 보건소 4층에 '노원구 모자건강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산모와 영유아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모자건강센터는 오는 6월 개소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중구, 70년간해묵은 주민불편 해소 위해 적극 행정 펼친다

쌍림동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 행정 지원



중구가 70여 년 간 집단공유지인 묶인 쌍림동 182의 86필지의 소유권 정리를 위해 공동소송을 신청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림동 182 일대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70년 전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허된 후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다.

하지만 구 당시 단독 소유형태로 분할 등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80여명의 공동소유 상태로 남아있어 해당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고 건축허가 등 토지 이용개발 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소유자들은 개별 소송을 통해 소유권 정리를 추진했지만 소송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아직 5필지만 정리된 상태다.

이에 구는 적극적 행정지원을 결정하고 지난해 6월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순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100%가 참여하는 공동소송을 이끌어 냈다.

먼저 구분소유가 되어 있어 소송이 가능한 72필지, 72명의 소유자가 공동소송 합의자로 결정되는 제소전 화해(참여자가간 소송 전 화해)를 지난해 9월 접수하였다. 이와 함께 72명의 공동 원고가 피고 34명(특정 구분소유 확인 불가, 기정리, 개별 소송진행)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지난해 12월 법원에 신청하였다. 협약을 통해 제소전화해와 공동소송 72필지에 대한 착수금을 제외한 별도의 성공보수 지급 없이 소송을 진행해 변호사 수임료는 약 20억 원 절감되었다. 유사사례 소송비용을 조사해본 결과 법무법인 수임료 10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참여자 공동소송 진행으로 법원 송달료는 단 7만원이며 이는

개별소송 대비 10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법원 기일들이 지연되어 판결을 기다리는 주민들의 좌절은 커지고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달 25일 주민간담회를 열어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를 통해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과 소송 및 소유권 정리절차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검토했다.

주민 대상 1:1 설명과 함께 신속한 소송관결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밴드를 지난달 30일에 개설하여 소송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협조할 수 있는 장구를 마련했다.

구는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 등이 삽입된 리플렛을 제작하여 우편과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며, 관련 동영상도 제작·배포하여 현황 및 문제점과 행정지원 사항을 상황극을 통해 알기 쉽게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소송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구청장 명의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결 후에는 등기 지분·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건축물대장 지번 정비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는 소유자들의 오랜 염원인 쌍림동 182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70여 년 간 주민을 애대한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를 통해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영등포구, "태양광 미니발전소로 전기요금 절감하세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배란다형 5만 원, 주택형 52만 원 자부담

영등포구는 친환경 에너지원의 생산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에 참여할 1,010개 가구를 모집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kW 미만의 소형 태양광 모듈을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태양으로부터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되는 태양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설비를 말한다.

구가 지원하는 미니발전소 유형은 배란다 난간·옥상에 설치하는 배란다형(50W~1kW 미만)과 주택 옥상·지붕 등에 설치하는 주택형(1kW~3kW 이하) 태양광 발전소로, 가구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325W 배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평균 31kW의 전기를 생산

하며, 매월 7천 원 ~ 1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형 태양광(3kW 기준)은 월 평균 288kW의 전기를 생산하며, 매월 약 6만 3천 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배란다형 발전소는 발코니 난간에 설치되는 '거치형'과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앵커형'이 있으며,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주택형의 경우 건물 옥상, 지붕에 설치되며, 주택 소유자 또는 신축될 주택의 소유예정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설치비용은 국·시비 보조금에 더해 구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며, 배란다형 태양광은 가구당 5만 원, 주택형 태양광은 가구당 100만 원의 구 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배란다형 태양광 설치에는 5만 원, 주택형 태양광의 경우

52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배란다형 태양광 발전소는 총 1000가구를 모집하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올 11월 말까지 태양광 플랫폼으로 전화 또는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서울햇빛마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형 발전소는 총 10가구를 모집하며, 오는 5월 3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설치 및 제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하거나 서울햇빛마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일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



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의 생산과 보급에 힘써, 녹색 건강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강동구,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징검다리 프로그램 운영

'연령도래 종결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동구는 '졸업아동을 위한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 등을 연계한 '미래세대 희망사업'을 펼친다.

프로그램은 연령이 도래한 종결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지난 해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역 사회 기관과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구는 연령도래로 졸업하는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로 긍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4월부터 「마음방역 심리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심리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는 △미래교육혁신센터와 함께 「강동 애프터스쿨」 멘토를 매칭하여 학습돌봄 등을 지원하고 △학부모를 위한 「학습코칭」도 제공한다. 또한 △「자아성장·가족성장 지원」을 강화하며, △어린이재단의 「교육기부보장사업」, 「두근두근 새학기 지원사업」을 후원받아 학원배움 등을 지원하고, 강동구 축구협회의 지원으로 「풋살 및 축구교실」도 운영한다. 아울러 △부스레기사랑나눔회의



후원으로 「드림액션 캠페인(재능지원사업)」을 지원하고, △현대엘앤씨(주), 현대홈쇼핑(주)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월 10만원씩 후원하여 아동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드림스타트 졸업아동을 위한 사후관리가 아동에게 꿈을 키우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지역의 자원과 도움의 손길을 모아 더불어 아동이 행복한 강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기자

은평구, 기후위기대응 '그린은평대작전' 캠페인 실시

개인의 실천이 가정의 실천, 나아가 마을의 실천으로 이어지기

은평구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거점 '그린모아모아사업'을 은평 전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위중한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은평구의 방향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의 작은 실천을 모으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선언'에 발맞춰 은평주민이 재밌고 간단하게 기후위기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그린은평대작전'을 지난달 9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동 권역별 2021년 의제개발 워크숍과 마을공동체화마당 주민투표를 통해 '기후위기 줄이는 살기 좋은 은평'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후 16개 동네별 기후위기 간담회를 통해 도출한 100가지 기후위기대응 방안을 16개 동 주민들이 함께 실천운동으로 펼쳐내 보고자 이번 캠페인을 시리즈로 기획했다.

이소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린은평대작전 담당자는 "최근 미세먼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

기후변화를 보며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활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한 개인의 실천이 가정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마을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리즈의 첫 번째로 7주 동안 진행 중인 그린은평대작전 1탄 〈1일 1실천 함께 나누기〉는 매주 4가지(쇼핑, 푸드, 생활실천, 자원순환) 영역의 실천사항과 기후위기 영향시정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매주 실천 결과를 센터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기록, 공유하고 있다.

세부 실천 제안으로는 장바구니 사용하기, 육식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계단 이용하기, 아이스팩 기증하기, 용기에 음식 담아오기, 음식 남기지 않기, 은평그린모아모아 참여하기 등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주민들의 실천 동기를 높이고자 1365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매주 4가지 이상 실천 인증을 한 주민에게 자원봉사 시간 1

시간을 부여하고, 실천 우수자 50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실천 아이디어와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도록 캠페인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실천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현재 그린은평대작전 1탄 〈1일 1실천 함께 나누기〉와 함께 4월 22일부터 그린은평대작전 2탄 〈수세미 모종 나눔〉 캠페인이 동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센터는 유관기관과 기후위기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3탄, 4탄 작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캠페인이 진행될수록 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특히 은평구 주민들은 '은평그린모아모아' 사업에 참여해본 경험이 많아 실천에 대한 적극성이 높음을 느꼈다"며 "은평구의 '그린모아모아사업'이 지역거점 중심의 자원순환실천 정책으로 호평 받고 있다면 '그린은평대작전'은 조금 더 개인 중심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 기후위기대응에 기여해보는 캠페인으로 기억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Green Eupyeong Campaign poster with details about activities and dates.

서울특별시, 5월부터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전면폐지...2,300명 추가 지원

작년 75세 이상 우선 폐지 이어 전 가구 확대...코로나19 위기가구 적기지원 효과

서울특별시가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 씨(만 82세 여)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자녀 3명 중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그러던 중 동주민센터 직원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 덕분에 지금은 매월 생계급여로 약 20만 원을 받고 있다.

앞서 작년 8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모든 가구로 범위를 전면 확대해 수급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가구와 지원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포함시켜 보다 촘촘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이후 1,875명을 추가 발굴해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올해 1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제도 변경 심의를 완료하고 전면 시행

에 들어가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과 재산(가구당 1억3천5백만 원 이하)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속 적용한다.

정부가 오는 '22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발 앞서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코로나19로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한다. 이는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고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서울시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은 본인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질적 빈곤층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를 촉진하여 정부 정책 견인 및 타시도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5월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

I·SEOUL·U 서울특별시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더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 무엇을 지원하나요?**
 - ▶ 생계급여(차등지원), 재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중위소득 45% 이하
 - ▶ 재산기준 1억 3,500만원 이하 서울시민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자동차 기준 부합)
 - *다만, 소득 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를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하여 신청
-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 02-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 확인 서울시민

최광수/기자

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가 증가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서울시가 선제적

으로 폐지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국제회의복합지구' 사업 공모 또 1위

작년에 이어 연속 1위, 국비 5억8천만 원 확보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해 국비 5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인천관광공사뿐만 아니라 인천관광·마이스포럼, 인천마이스얼라이언스, 국제회의집적시설 관계자가 사업 발굴부터 발표 준비까지 공동으로 참여해 성과를 거둔 만큼 공모사업에 있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됐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컨벤션센터 및 숙박, 쇼핑 등 국제회의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인천시는 2018년 8월 송도컨벤시아 일원 2.98km² 지역을 지정해 지금까지 활성화 사업에 16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번에 국비포함 11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 국내외 마이스 매체를 통한 홍보 ▲ 국제회의의 미팅테크놀로지

지원 ▲ 집적시설 불입 이벤트 ▲ 마이스 인재양성 교육 ▲ 안전한 마이스 행사 개최를 위한 방역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온라인 미팅테크놀로지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흐름에 맞춰 차세대 마이스 도시로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 스튜디오, 3D 온라인 회의 플랫폼, 홀로그램 상영관을 지난 3월에 구축했으며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등 국내외 마이스행사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박찬훈 시 문화관광국장은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국제회의 경쟁력 강화, 뉴노멀시대 디지털인프라 구축, 다양한 마이스 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통해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가 국내 최고를 넘어서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인천사서원, '온 마을이 키우는' 아동복지 기틀 다진다

구립 계양해링턴 어린이집 개소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1호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연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유해숙)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계양해링턴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고 '온 마을이 키우는' 아동복지 기틀 다지기 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용 아동들은 오는 5월3일 처음으로 등원한다.

계양해링턴은 만 0~3세 아동 시설로 정원은 55명이다. 장애통합반과 시간연장반을 운영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장애통합반은 장애 영유아의 생활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유아교육 환경을 만든다. 비장애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에서 충분한 경험을 하도록 지원한다. 또 발달특성과 개인차, 경험을 고려한 놀이 중심 교육을 편성한다. 정원은 3명이다.

시간 연장 보육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을 함께 돌보는 통합반으로 구성한다. 기본반이 끝나는 오후 4시~7시30분 연장반을 운영하고 오후 7시30분~9시30분은 시간연장반을 추가로 둔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토요일에도 오후 3시30분~6시 문 연다.

여기에 만 3세 아동이 참여하는 '계양산 숲 체험 보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꽃의 요정' 숲으로 만들어요' '나뭇잎 왕관 만들기' 등 매주 다른 주제로 숲을 찾아가 자연을 탐구하는 시간으로 꾸민다.

매월 1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가족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친환경 프로그램을 만들어 계양구 방죽동 인천어린이과학관, 계양 꽃마루 공원을 매월 찾아가 페트병을 이용한 분수 놀이, 종이컵 인형 놀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한 활동과 텃밭 가꾸기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서운도서관, 효성도서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 내일을 여는 집, 계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한림병원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사서원은 '온 마을이 키우는 우리 아이' 실현을 위해 지난 1월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난 3월에는 방과 후 초등생 돌봄을 담당하는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



을 시작했다.

한편 인천사서원은 지난 27일 계양해링턴 어린이집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해숙 인천사서원 원장을 비롯해 이승희 어린이집 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유해숙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인천사서원이 운영하는 1호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한다"며 "가정, 사회, 국가가 만든 '아이 행복 네트워크' 안에서 아이들이 따뜻하고 당당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소래포구에 미술전시 보러가요" 남동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눈길

인천 남동구의 명소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청년미디어타워가 생활 속 미술관으로 깜짝 변신했다.

남동구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완료하고 일반 관람객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중의 예술이란 모토 아래 지역예술인을 중심으로 41명이 참여한 소래포구와 청년미디어타워에 벽화와 조형물 등의 미술 작품을 설치했다.

청년미디어타워는 관람객이 예술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스튜디오'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하고, 4월 한 달간 주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2층에는 남동구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모여라 소래포구'라는 공예작품을 설치했으며, 오는 5월 어시장 현대화사업 2차 준공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청년미디어타워를 방문한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미술관이 진지하고 일반인들이 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인식을 이겨내야 할 때"라며 "청년미디어타워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어시장에 놀러와 편하게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미술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코로나19로 현장 방문이 어



려운 구민들을 위해 작품 소개, 참여 작가 작품 활동 과정, 주민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후기 영상 등을 제작·공개할 예정이다.

변재현/기자

강화군, 2021년 민방위교육 비대면 사이버교육 시행

5월 1일부터 사이버교육 수강

강화군이 비상소집훈련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전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

사이버 교육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를 둔 1~4년 차, 5년 차 이상의 지역·직장민방위 대원 2천9백여 명이다.

2021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본교육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하반기 보충교육은 1·차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방위 대원은 강화군청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에서 스마트 민방위 교육사이트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사이버교육(1시간)을 받으면 된다. 객관식 평가 20문항 중 70점 이상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대원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면교육 등을 통해 민방위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황 참여 대원 및 재난 봉사활동 참여 대원이 증빙서류를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경우에도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며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남/기자

구로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구로구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총 1만1,083호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05%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구청 부과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

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28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에 대한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조정 가격은 6월 25일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내달 28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서울 남부지사, 구청 부과과, 부동산공



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후 이의 신청하면 된다.

김미성/기자

고양시 시민단체가 청구한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보정명령 받아 “법리 다툼 기대해 볼만”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 더욱 거세질 것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천만 위원장은 “당초 여러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였지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으로 각하될 것이다”라며 회의적인 변호사 상담 경험담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해당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처분이 아닌 보정명령을 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에서는 보정명령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출이 어려운 서류가 아닌 만큼 해당 내용을 갖추어 법리 다툼을 해볼만 하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행태임을 문제 제기 하고 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김포·파주 등 인접 지자체와 시의회·도의회·국회 뿐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확산됐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결정이 아닌 보정명령을 받으며, 고양시가 처음 시작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보정 명령이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부족한 이를 보충하라는 명령으로, 김 위원장은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되는 경우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겠냐며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헌법소원심판에 임하여 침해당한 경기서북부 주민의 기본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경기도에서 일산대교를 매

헌법소원의 요건

- ① 공권력의 행사·불행사·헌법소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위헌적인 공권력 작용이 포함될 것
- ②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항일 것
- ③ 보충성·최후의 구제수단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할 것
- ④ 자기관련성·기본권이 침해당한 사람만이 헌법소원 제기 가능
- ⑤ 현재성·기본권이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침해당한 경우만 제기 가능
- ⑥ 권리보호의 이익·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구제 제도로 목적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만 청구 가능
- ⑦ 청구기간·소원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하여야 함

입하여 무료화 해 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고양시에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일산대교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 개진과 범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①공권력의 행사·불행사, ②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③보충성, ④자기관련성, ⑤현재성, ⑥권리보호의 이익, ⑦청구기간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경우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 분안 심리까지 가지도 못하고 각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6년 ‘사드 배치’, 2019년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 결정됐다.

아울러 27일 경기도지사는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에 대해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영기기자

화성시,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근절 나서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 점검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다.

또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다.

김남주기자

하동군, 농어촌 민박·펜션·야영장 소방시설 설치 확인제 시행

하동소방서, 민박 등 신고 시 소방서가 소방시설 등 점검·확인 후 시·군 통보

경남 하동소방서는 농어촌 민박·펜션·야영장 신고(신고) 시 소방서가 소방시설 등을 직접 점검해 통보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는 농어촌 민박·펜션·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되며 신규 영업신고 때 소방시설 등을 시·군이 아닌 소방서가 점검·확인하는 시책이다.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과 방염물품의 적합여부는 물론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하며 시·군 담당자는 신규 영업신고 접수 시 소방서로 현장 확인을 의뢰하고 소방서 담당자는 현장 확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 영업 중인 곳도 오는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실한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영업주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현문 서장은 “하동군과 협업을 통해 민박·펜션·야영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정비에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부산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관리 주간 특별점검 실시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01,603곳에 대한 특별점검 추진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방역 긴장도가 완화된 5월 봄 행락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잦아짐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우려해,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를 특별방역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강화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급격한 증가는 없으나 지속적·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1주일간 위기관리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01,603곳에 대해 운영중단, 방역수칙 의무화 등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 및 구·군 합동점검반과 야간 기동단속반은 이 기간에 시설별

로 현장점검을 펼치고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를 적용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방역관리 주간 중 4월 29일을 현장점검의 날로 운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연제구 선별진료소(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 방법, 선별검사 등 접중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시·실·국·본부장과 구·군 단체장도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점·일반관리시설 2~3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월 2일까지의 특별방역관리 주간을 지난 3월 유흥업소 발 집단감염 이후 계속되고 있는 확산세를 반전시킬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해당 기간 강화된 점검과 처벌을 적용해 적발된 업주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남영기기자

광양시, 내·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

무허가조업, 불법어구 설치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 합동단속

광양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내·해수면 불법어업 예방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을 조성코자 전라남도와 도내 각 지자체와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무허가어업, 어선 표지판 미부착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수 산란기 이면서 해수면의 본격적인 어업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로, 봄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목적이다.

특히, 광양시는 최근 동·서천 등 하천에 불법어구 설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되며, 위반자는 행정·사법처분 등을 받고 각종 해양수산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장민석 철강강만과장은 “이번 집



중단속을 통해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인 자율적 준법 조업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4월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2톤 이상 어선 대상으로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민 여러분도 어업질서 확립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 조성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조기석기자

영주 소백산 명이나물, 카카오톡으로 주문하세요

영주장날 쇼핑몰 ‘소백산자락 명이나물’, 카카오톡 쇼핑하기 특달 진행

경북 영주시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소백산자락 명이나물’의 카카오톡 쇼핑하기 특달을 진행한다.

카카오톡 쇼핑하기 특달은 2인 이상이 딜에 참여하면 할인 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공동구매 시스템으로, 최근 비대면 유통 채널의 확장으로 대규모 모바일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톡 커머스의 대표적인 쇼핑 서비스이다.

이번 특달 프로모션 제품인 영주장날 쇼핑몰의 ‘소백산자락 명이나물’은 경북 영주시 해발 500m 소백산 자락에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가 키운 향이 진하고 건강한 제철농산물이다.

이번 특달 기간은 오는 29일 17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79시간동안 진행되며, ‘소백산자락 명이나물’ 1kg을 13,900원 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영주장날 온라인 쇼핑몰은 소백산 정정지역에서 생산한 사과, 인삼, 한우 등 영주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

하는 쇼핑몰로서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90개 농가 및 업체의 700여개 품목의 제품을 판매 중이다.

현재 영주장날 쇼핑몰은 자체적으로 가정의 달 맞이 할인 기획전을 통해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일부 품목 최대 60% 할인, 신규회원 할인쿠폰 지급, 구매왕 사은품 증정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김덕조 유통지원과장은 “우리 고장의 우수한 제철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쇼핑하기 특달 프로모션을 추진해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건강한 영주 농특산물을 소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 해 경북 지역 시군단위 지자체 쇼핑몰 중 최초로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입점해 현재 약 30개농가 120여개 상품을 판매 중이다.

또한 카카오톡 쇼핑하기 특달 프로모션을 2회 진행해 지역 농가 및



업체의 판로 확대를 돕고, 영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린 바 있다.

영주장날 쇼핑몰 입점을 원하는 농가 및 업체는 영주시청 유통지원과 또는 영주장날 쇼핑몰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현기자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 5월 청년 테마 특강 수강생 모집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에서 5월 청년 테마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5월 8일 강의 예정인 '창업 나만의 아이덴티티로 승부하라' 강의는 창업 전문강사로 활약 중인 (주)에피 이혜미 대표로부터 창업을 망설이는 청춘들에게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과 관련한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5월 18일 강의 예정인 '빛나는 창업' 강의는 (주)공의 대표인 조빛나 강사로부터 창업을 해도 괜찮을까를 고민하는 청년들과 강사의 경험을 서로 나누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예비창업자에게는 멘토링과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의왕청년발전소 청년테마특강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마다 12명 선착순(관내 청년 우선)으로 접수 받는다.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의왕청년발전소 고천센터로 전화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청년발전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원종균/기자



광명시, 빅데이터로 지역간 생활SOC 불균형 해소

18개 동 생활SOC 역량 분석 빅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광명시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역별 생활SOC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광명시는 지난 21일 '빅데이터 활용모델 개발사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해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생활SOC'란 학교·어린이집·공원·도서관 등 시민의 일상적 편익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각종 시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모델 개발 공모사업에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시 지역별 생활SOC 불균형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제가 선정되면서 전액 도비로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생활SOC 시설 관련 경기도 및 광명시 내부 데이터와 민간 정보 등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18개 동을 대상으로 생활SOC 역량을 분석하는 빅데이터 활용모델을 개발했다.

광명시에 맞는 분석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기반으로 생활SOC 시설을 11개 유형과 41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생활SOC 시설별로 공급량·근접도·이동편의성이 포함된 역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의 지리적 중심을 포함한 남동부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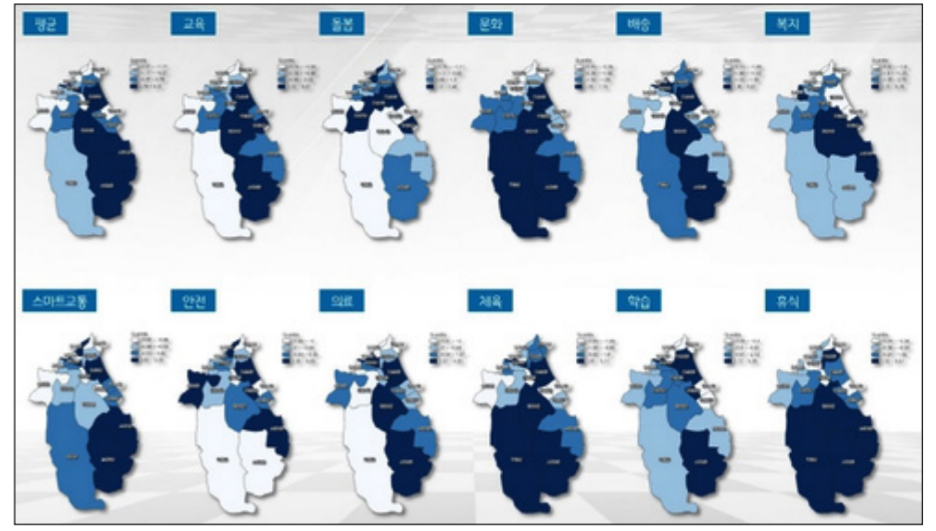
역이 북서부 권역보다 전반적으로 생활SOC 역량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로는 철산3동·소하2동·하안1동의 역량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철산1동·광명1동·하안4동의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족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의 공급을 늘리거나 우수한 지역과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정에서 조사한 '광명시 생활SOC 만족도 및 복합화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민들은 전반적인 생활SOC 수준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었지만 접근성과 시설 노후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생활SOC 서비스에 대한 '만족' 의견이 44.85%, '매우 만족'이 21.51%, '보통'이 27.85%였으며, 부정적인 답변은 5.79%로 응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불만족 사유에 대해서는 1위가 '주차공간 부족'(18.61%), 2위 '시설 노후화'(18.43%), 3위 '위치가 나빠서'(18.1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생활SOC 시설에 대한 질문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체육센터 등)이 15.8%, 보건 의료시설(보건소, 보건분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민건강



증진센터 등)이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체육과 보건 의료시설에 시민들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 모델은 2021년 경기도 전역 확산 과제로 선정되어 보다 개선된 시스템으로 구축될 계획이며, 실제 주민 수요조사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별 취약시설 발굴과 새로 공급되는 시설의 적정 입지를 결정하는 객관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결과보고회에서 "광명시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주민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의 수요와 시설 특성을 고려해 생활SOC 시설을 확

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광명시는 지역 간 생활SOC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및 증축하여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6억 원을 확보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사업과 광명동초 복합시설 사업이 마무리되면 480여 면의 대규모 주차장과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돼 시민에게 더 나은 환경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순희/기자

시흥시, '미안마 민주주의 응원 주간' 시민 1천여 명 참여로 큰 호응 얻어

시흥시가 지난 12일부터 2주 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 '미안마 응원주간'이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응원 주간에는 유관단체, 초·중·고생, 노인, 장애인, 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응원활동에 참여했다.

시민들은 미안마의 안타까운 희생과 아픔을 공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직접 손편지를 만들어 응원에 동참했다. 선거·민주주의·자유의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미안마 국민의 용기 있는 실천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담았다.

응원활동에 참여한 한 시민은 "심각해져가는 미안마 군부의 인권유린과 희생자 발생에 대해 관심을 높여서는 안 된다"며 "미안마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국제사회의 연대이다. 비록 할 수 있는 일이 지켜보고 지지하는 것뿐이지만 끝까지 응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미안마 민주주의 응원 주간과 관련해 "민주화



과정에서 아픈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안마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 시흥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 '미안마 민주주의 응원 주간'에서 활영한 시흥시 응원 동영상은 미안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미안마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정부/기자

경기도 가상/증강현실 우수아이템, 전문가 도움받고 새로운 판로 찾자!

경기도, 판로개척 지원 목적 'VR/AR 상생컨설팅' 사업 신규 추진...5.19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는 우수한 VR/AR(가상/증강현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도내 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VR/AR 상생컨설팅'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달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VR/AR 상생컨설팅'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가상/증강현실 아이템을 제작했음에도 판로확보가 어렵다는 도내 기업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으로, 새로운 수요처를 연결하고 다른 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등 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소재 가상/증강현실 상용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교육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3개 분야로 모집, 각 분야별 4개사 내외를 선발해 총 12개사

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분야별 전문가문단과 서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자문단이 분야별로 수요처를 직접 탐색하고 계약 연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판로개척을 지원받는다. 수요연결/협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자문단간 지속 소통, 다양한 기업과의 교류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선발 기업의 역량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4회 이상의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기업별 비즈니스 전략 분석과 함께 유통전략, 홍보·마케팅 전략을 분석해 보완점을 제시해준다. 이 외에도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분야에 맞춤형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 사업은 기존에 판로 확보가 힘들었

던 기업들이 새로운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요 기업과 공급기업, 각기 다른 분야의 기

업 간 협업으로 새로운 상생의 가치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안양문화원, 안양향토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시연 행사 성료

안양문화원은 그동안 주목하지 못한 안양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발굴한 안양만안담교놀이, 수리산 산신제, 안양검무를 향후 향토문화유산으로 계승, 활성화하기 위해 향토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양문화원은 올해 초 학술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4월 16일 원사 강당에서 '지역문화 발굴 및 계승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5일에는 향토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무형문화 시연 행사를 병목안 시민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하여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전통시 안양문화원장은 시연 행사 개최사에서 "오늘 공개하는 3개의 무형문화유산이 안양시민 누구나 향유하고 함께 즐기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성장하여 안양시의 지역문화 발전을 이끄는 단단한 거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안양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산실로서 제 역할을 다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최태호 안양시장은 축하 영



상을 통해 "안양만의 특징을 가진 이 세 종목이 향토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이 된다면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라며 "안양시가 이를 후손에게 더욱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본 행사는 지정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들도 참관한 가운데 안양검무를 시작으로 안양만안담교놀이, 수리산 산신제 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출입통제선 밖으로 지나가던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안양문화원은 본 행사의 영상을 향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원종균/기자

고양시, '제14회 고양시 창안대회' 아이디어 공모

당신의 아이디어로 고양시를 디자인해보세요!

고양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4회 고양시창안대회'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켜줄 아이디어'를 대표 주제로 해 환경, 교통, 복지, 교육, 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자유 주제로 진행된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고양시민은 물론 타지역 시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다. 시는 시민평가단 및 실무부서 평가(1차 평가)와 전문심사위원 평가(2차 평가)를 거쳐 결선대회에 참여할 10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10팀은 아이디어 육성·보완 워크숍을 거쳐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일정기간 예비실현을 추진한다. 최종 결선대회에서는 사회장안상(1팀)에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8팀을 선정해 총 6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선정된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고양사회창안센터 카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양사회창안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시는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13회의 창안대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고양시 개방 시설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공시설개발정보 공유, ▲자가 건강진단이 가능한 호수공원 내 셀프보건소 설치, ▲고양TV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만리걸 놀이터 조성, ▲마을공간을 활용한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전통월제어 안전표지 등이 있다.

한영기/기자

용인시, 5월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용인시, 0.5ha 이하 소농에 120만원·경작면적에 따라 단가 적용

용인시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5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을 통해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친환경·논활용 등의 경우로 나뉘는데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 농업 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가 산정되는데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직불금을 받는다. 직불 지급 상한 면

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 사이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받은 적 있는 농지여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사람이다. 농지와 지급대상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되고 동 지역은 구청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관련 기간의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행 첫 해인 지난해 4,720농가에 소농직불금 19억원과 면적직불금 52억원을 지급했다.

최근수기자



부천시, 청년노동자목돈 마련에 나서

부천시는 청년들의 구직·창업·주거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317명을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본인이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4월 1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로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참여 가능하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다르게 병역의무이행자가 신청 시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 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

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또한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접수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대상자 발표 결과는 오는 6월 15일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

전순희/기자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1차)

참여대상
공공일(04.19.)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만34세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 노동자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비면세분, 자영업 등) 포함)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되고 만 39세

지원내용
매월 10만 원씩 24개월 저축 시 본인 저축액 포함 580만 원 상당 지원(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신청기간(1차)
2021. 04. 23.(금) 09:00~
2021. 05. 10.(월) 18:00
(모집은 신청순이 아니며, 마감일에는 접수자가 몰려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
(1차) 5,000명 * 2차 모집은 8월~9월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account.jobaba.net(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신청사이트(account.jobaba.net) 또는 경기청년포탈(youth.gg.go.kr)을 확인해주세요.

세부내용
경기도청·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공고문 필수 확인
사업문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877-9358 (운영시간 04.19.(월)~05.10.(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공공문 참조)
시스템문의: 홈페이지 관리 1661-9101

기타사항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금액 등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 선발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등 선정 제외 대상자는 공고문 참조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 · 실천원칙 공유

29일 오후 2시 반, 전국 민주학교 배움공유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민주학교, 같이 걸을까?'를 주제로 29일 원격으로 전국 민주학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민주학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전국 193교에서 시작했으며, 올해는 총 278교가 참여하고 있다.

도내 민주학교는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라는 이름으로 42교가 각 지역에서 중심학교 역할을 담당하며, 일상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시작한 학교들이 처음 시작하는 학교들과 민주학교의 정책 방향과 실천원칙을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움공유회를 준비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민주학교 교사들과 서울대학교 정원규 교수가 민주학교를 노래와 이야기로 풀어내는 콘서트를 진행하며, 이 시간은 경기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 나 시청할 수 있다.

또, 전국 278교,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담당자 600여 명이 여섯 가지 사례를 통해 상황과 요구, 고민을 함께 나눈다.

여섯 가지 주제는 ▲초등·중등 교육과정의 민주주의, ▲학교문화의 민주주의, ▲실천하는 민주주의, ▲초등·중등 민주학교 운영이다.

도교육청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민주주의가 하나의 과정이듯, 민주학교는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고정된 유형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서, "배움공유회는 민주학교 실천 연차와 상관없이 저마다의 속도와 색깔로 걸어가는 과정을 응원하고 함께 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월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길라잡이』를 전국 최초로 발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민주학교에 배포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배움공유회를 통해 그동안 성과를 다시 나눌 계획이다.

최근수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경상남도, 녹색건축으로 기후위기 대응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남도 녹색건축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경상남도가 2030년까지 건축물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30.2% 감축하고, 일자리 3천여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려 녹색건축이 대두되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건축설비 등 지역의 녹색건축정책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녹색건축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을 위해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건축분야에서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선제적 달성 5대 추진전략 12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2023년 5백㎡ 이상 공공부문, 2025년 1천㎡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마련을 하였다.

이에 맞춰 경남도는 5월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 제정 고시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합계 2천㎡ 이상 일반건축물은 친환경적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도 및 시군에서 건립하는 5백㎡ 이상 공공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한다. 이는 정부의 2023년 시행계획 보다 1년 앞선 것으로 관련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민간노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는 경비실, 청소원 휴게실,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그

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지난해부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사업성과와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그린 리모델링사업을 노후민간주택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창호교체, 단열보강, LED조명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켜 저탄소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창호 5등급을 1등급으로 교체만 하여도 에너지소비효율은 30% 이상 좋아진다.

그 밖에 주요 정책으로는 공공건축물 수소연료전지 설치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녹색도시화 추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통한 기술지원 및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종합 계획으로 범정부적 기



후위기 대응 정책에 부응하고 녹색건축 실행력이 강화되어 녹색건축물 조성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2030년 온실가스 30% 감축목표를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꽃길만 걸으세요' 사천시 향촌동, 주민들이 만드는 봉남천 꽃내음

각종 불법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았던 사천시 향촌동 봉남천변에 유채꽃이 만개해 봄 인사를 건네고 있다.

28일 사천시에 따르면 향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축으로 전 조직단체 회원들이 봉남천변에 유채꽃길을 조성해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힐링과 함께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봉남천변은 평소 자연의 사계절을 느끼며 운동하기에 좋아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즐겨 찾는 장소이나 각종 불법쓰레기 투기 문제로 지적받아 온 곳이다.

이에 향촌동 전 조직단체 회원들이 봉남천변에 유채꽃길을 조성하자고 뜻을 모은 뒤 유채과종 및 환경정비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코스모스 등을 계절에 맞는 볼거리를 식재하는 등 꽃길 관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천시는 이번 유채꽃길 조성을 통해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은 물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촌동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주민들의 힘으로 조성된 봉남천변 꽃길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산책하는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김해시 '꽃 향기가 ON AIR' 개최

언택트 온라인 화훼 판매행사 마련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화훼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영남화훼원에농협과 함께 오는 5월 2일 오후 2시 언택트 온라인 화훼 판매행사 '꽃 향기가 ON AIR'를 개최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꽃 특별 기획전으로 네이버 쇼핑라이브와 영남화훼원에농협 공식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방송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 구매가 가능하며 5월 2~4일 3일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e-경남몰을 통해서도 주문 가능하다.

2가지 구성의 꽃세트를 A형 2만2,900원, B형 1만8,900원으로 합리적 가격에 판매하며 한정수량 매진 시 구매할 수 없다.

방송은 MC 김태진, 유튜브 인플루언스(오마이로즈), 초대가수(미스터트롯 나태주, 미스트롯 시즌2 트윈걸스)가 출연해 퀴즈 이벤트, 꽃꽂이 노하우, 꽃 컨디셔닝 방법, 꽃다발 만들기 시연,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유튜브 등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라이브커머스 판매행사를 기획했다"며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5월 22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경상남도는 다음 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서 15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예외적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미혼산모 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 산모의 감염 예방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5월~25일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비용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등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정부 지원금도 달라진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료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희망하는 산모들의 수요를 반영한 이번 대상 확대가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남해군,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남해군 개최 확정

남면 덕월~서면 서상 임도에 산림레포츠 매니아가 몰려온다!

남해군은 지난해 코로나 19 영향으로 취소됐던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를 오는 9~10월 '남면 덕월~서면 서상' 임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는 임도의 활용도를 높인 물론,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림레포츠(산악자전거 등)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이벤트다.

지난 3월 산림청에서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주관기관 공모에 따라 산악자전거 대회와 산악마라톤 대회의 주관기관이 선정되었다.

산악자전거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산악마라톤은 (사)대한올트라마라톤 연맹이 각각 선정됐다.

산악자전거대회는 오는 9월, 산악마라톤 대회는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주관 기관과 함께 대회 코스 정비 등 전반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서포터할 계획이다.

특히 남해군은 남해를 찾는 500여명의 참가선수와 관광객들이 대회기간 중 어려움이 없도록 숙박시설 등



주변 인프라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과 함께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테마임도 지정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가 함께 하는 새로운 임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산청군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찾아 돕는다

한시 생계지원사업...기존 지원 받지 못한 위기가구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의 하나다. 소상공인비밀목자금융플러스, 고용안정 지원금 등과 같이 다른 코로나19 피해대책과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5월10일부터 온라인(복지로)에서 먼저 시작한다. 5월17일부터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다.

신청 요건은 2019~2020년도 대비 2021년 1~5월의 월 또는 평균소득을 비교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주민등록상(2021년 3월1일 기준) 가구원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농어촌 3억원 이하)기준을 확인해 현금을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6월 25일(1차)에 50만원 대상자, 6월 28일(2차)에 20만원 대상자에게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소규모 농가에 바우처(30만원)를 지급한

다. 중복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차 정부재난 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산청군에서 877가구에 4억 8704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 역시 지원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더 많은 군민들이 해

택을 볼 수 있도록 현수막, 리플릿, 군홈페이지 게시 및 이장회의 등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피해대책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서는 꼭 신청하길 바란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대구시설공단, 제9기 대학생서포터즈 모집

제9기 대학생 서포터즈, 지역 우수 대학생 20명 모집

대구시설공단이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제9기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설공단 대학생 서포터즈는 향후 공단의 주 이용고객이 될 젊은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에 시작하여 매년 지역의 우수 대학생들을 선발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제9기 대학생 서포터즈는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하며, 접수 기간은 4월 26일(월)부터 5월 7일(금)까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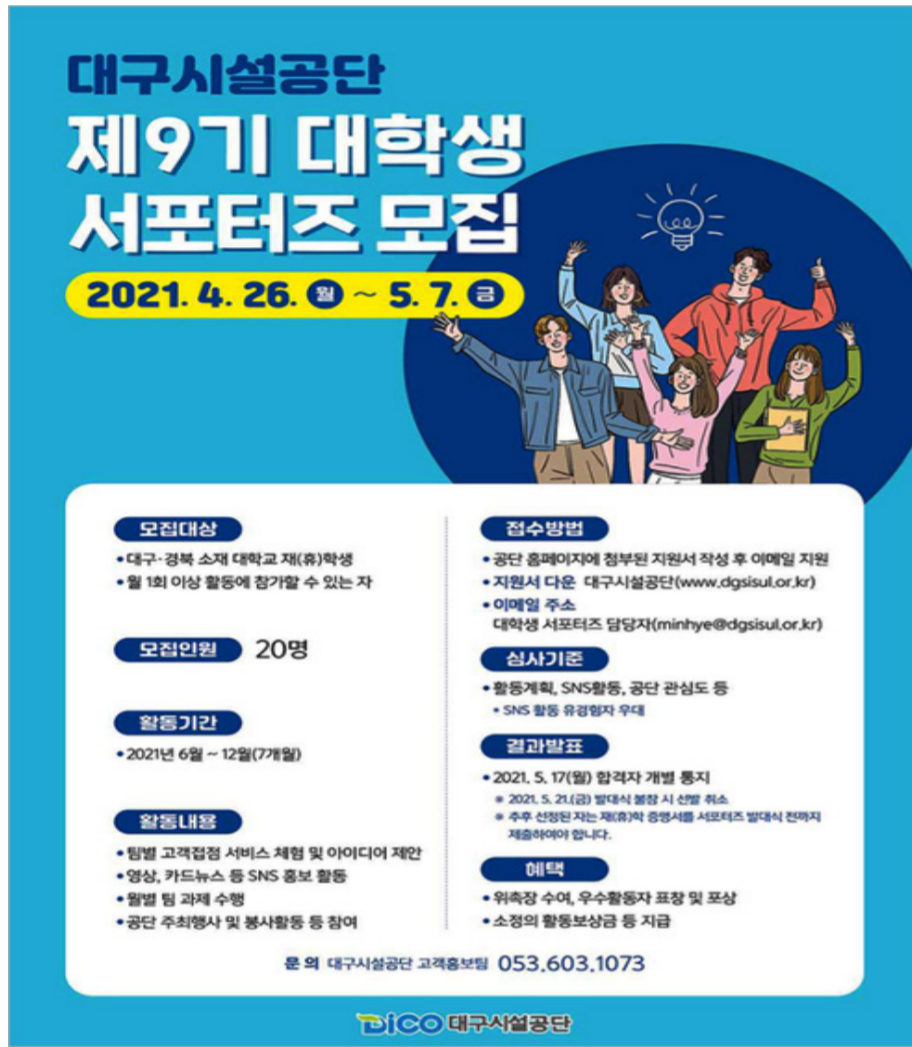
서포터즈로 선발된 학생들은 6월부

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공단 시설 및 서비스 체험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홍보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활동 ▲공단 직원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서포터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지원은 공단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설공단 김호경 이사장은 “우리 지역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한다.”며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대학생들의 값진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대구시설공단 제9기 대학생서포터즈 모집
2021. 4. 26. (월) ~ 5. 7. (금)

모집대상

-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 월 1회 이상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모집인원 20명

활동기간 2021년 6월 ~ 12월(7개월)

활동내용

- 특별 고객접점 서비스 체험 및 아이디어 제안
- 영상, 카드뉴스 등 SNS 홍보 활동
- 월별 팀 과제 수행
- 공단 주최행사 및 봉사활동 등 참여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 첨부된 지원서 작성 후 이메일 지원
- 지원서 다른 대구시설공단(www.dgsisul.or.kr)
- 이메일 주소: 대학생 서포터즈 담당자(minhye@dgsisul.or.kr)

선사기준

- 활동계획, SNS활동, 공단 관심도 등
- SNS 활동 유망함자 우대

결과발표

- 2021. 5. 17(월) 합격자 개별 통지
- 2021. 5. 21(금) 합격자 현장 시상 행사
- 주요 선정기준: 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적 우수, 전공 분야 관련 전공자 우대

이점

- 유망직 수혜, 우수활동자 표창 및 포상
- 소정의 활동보상금 등 지급

문의: 대구시설공단 고객홍보팀 053.603.1073

경상북도, 어버이날 선물... 안테나숍 농식품 특판전 개최

경북 6차산업 '안테나숍' 7개소에서 가정의 달 맞이 특판전 개최

경상북도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4. 29일 ~ 5. 14일까지 16일간 경북 6차산업 '안테나숍' 7개 지점(대백프라자점, 이마트 경산·구미·월배·포항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안테나숍에서 마련한 감사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이벤트로 경북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제품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인들과의 교류가 뜸했던 만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중한 이들에게 고마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나아가 경북 농특산물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안테나숍'에서는 행사기간 동안 꿀, 차, 조청 등 건강식품 일부 품목에 대해 '1+1'으로 특별 판매할 계획이며, 3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오미자즙, 들기름, 미숫가루 등 신규 상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더불어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에는 7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꽃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다.

한편,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은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업(1차산업)과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인증하여 핵심경역체로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영체 중 성장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마인드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며, 3년마다 자격요건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2020년까지 216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벌꿀, 장류, 한과 등 다양한 농식품 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김중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특별판매전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질 좋은 경북 농특산물을 구입하여 가족과 함께 풍성히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안테나숍에서 마련한 감사 DAY!
2021. 4. 29 (목) ~ 5. 14 (금)

1+1 증정 이벤트 4. 29 - 소진 시까지

사은품 증정 4. 29 - 소진 시까지

어버이날 꽃 증정 5. 7

행사 장소

- SHINSEGAE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지하 1층)
- DIGG 대구백화점 대백프라자점 (지하 1층)
- Emart 구미점(지하 1층), 경산점(1층), 월배점(1층), 포항점(1층)
- LOTTE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지하 1층)

문의 | 054.880.3328 / 054.650.1141

문경시, 4월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 우수단지 시상

문경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 4월의 우수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단지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자연보호문경시협의회,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등 민간 환경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통해 최고의 득점을 받은 푸른숲 아파트가 선정됐다.

푸른숲 아파트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선별, 이물질 등 타 재질 제거 등으로 생활 속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왔으며, 특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라벨 제거, 압착 등 분리 배출 절차를 적극 이

행하여 현장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상품으로 방역마스크 2장씩을 각 세대마다 지급하였으며, 아파트 단지 내에 “이 달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경진대회 우수단지” 현수막을 게시하여 분리배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박희영 환경보호과장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에 솔선수범해 주신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청송군, 보조금24 활용 및 안내 적극 나서!

인터넷 접속 어려운 디지털 약자 위한 창구안내 병행



보조금24
정부24 로그인 한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1. 21. 4. 28. (수)부터 전국에서 실시합니다.

온라인 이용방법

어디서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회원가입 필수)

누가 본인

어떻게

- 정부24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 서비스 이용종류 체크 (최초1회)
- 정부혜택 확인 신청

문의처 정부24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오프라인 이용방법

어디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필수)

누가 본인 또는 대리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만)

어떻게

- 본인신분증 지참하여 보조금24신청서 제출
-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목록 수령하기
- 상세내용 확인 후 신청

2. 앞으로 더 많은 정부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21년 4월	21년 12월	22년
혜택 종류	중앙부처서비스 (305종)	지자체 서비스 (6천여 종)	금융기관, 민간단체 서비스
혜택 확인 가능 대상	본인	*동일세대내의 가족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
온라인 신청 가능	25종	75종까지	100종까지

*14세 이상 가족이 사전동의 시 확인 가능

청송군은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각종 수혜서비스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한 창구안내에 나선다.

군은 4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 '보조금24' 개시에 발맞춰, 주민들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읍·면을 방문하여 국가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보조금24'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300여종의 혜택 및 보조금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부24 로그인 후 '보

조금24'를 클릭하면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사업의 지원 내용, 접수방법 등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송군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읍·면 창구서비스도 제공한다.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읍·면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조금24 맞춤형 서비스 출력물을 받아볼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보조금24가 정보부족으로 인한 정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경주시 문무대왕면 새마을부녀회, 코로나19 방역소독 활동 및 환경정비 실시

금융기관 및 버스정류장 방역소독, 문무대왕릉 인근 불법쓰레기 수거

경주시 문무대왕면새마을부녀회에서는 지난 23일, 4월 임원회의를 마친 후 코로나19 방역소독 활동 및 봉길해변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2개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버스정류장 10개소의 방역소독을 실시했고, 방역 후에는 문무대왕릉이 있는 봉길해변으로 이동해 인근 불법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에도 앞장 섰다.

이달신 새마을부녀회장은 “추운 날씨에 바람도 많이 불어 방역소독 및 환경정비 실시가 쉽지 않았는데 깨끗한 모습을 보니 조금이나마 안

심이 되며,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수시로 마을 곳곳을 방역소독하고 환경정비를 하며 아름다운 문무대왕면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대 문무대왕면장은 “코로나19 예방과 아름다운 문무대왕면 조성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새마을부녀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최근 지역주민이 확산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영양농부들' 온라인마케팅으로 영양산나물 판매 열기 화끈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정보화 농업인회 '영농조합법인 영양농부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회원들이 생산한 영양산나물을 판매하고 있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자의 비대면 농산물 구매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최대 검색 점유율에서 우위를 자랑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와 경북 사이스볼에 영양산나물을 소비자

들의 선호에 맞게 소포장 세트상품으로 입점하여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년 전부터 농업인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 판매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교육 중 스스로 농산물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고 온라인몰에 입점 할 수 있

는 교육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중 상시로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제를 갖추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영양농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폭을 넓혀주고, 택배비를 절감 할 수 있는 다양한 꾸러미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영양산나물이 온라인 직거래에서도 선정

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영양산나물의 품질 향상을 통하여 봄 향기 가득한 산나물 도시 소비자에게 판매 될 수 있도록 선별과 포장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여수시, “시민목소리시정에 담다” 시민과의 열린 대화 성료

27개 읍면동 3,000여 명 참여, 시민 불편사항 등 318건 의견 청취 27개 읍면동 3,000여 명 참여, 시민 불편사항 등 318건 의견 청취

여수시가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2021년도 온택트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장 개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ZOOM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도입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2월 22일 남면을 시작으로 지난 26일 국동까지 27개 읍면동 주민 3,000여 명을 만났다. 읍면동별 90명~100명의 주민들은 자택, 직장 등 각자의 공간에서 화상으로 참여하고, 권 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도·시의원, 시 간부공무원들은 시청현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했다.

올해 시민과의 대화는 268명의 시민들이 318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마을 안길 정비, 주차 개선 방안, 주민편의

시설 설치 등 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부터 도로 개설, 도시 균형개발, 도시계획 등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건의가 주를 이뤘다.

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서면건의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후 건의자에게 처리계획을 회신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시민불편 등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 시민들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려는 여수시의 노력이 돋보였다”면서, 저녁 7시 개최로 직장인, 청년,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지역가수를 초청한 온택트 라이브 뮤직타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가수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주고, 지역 있는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권오봉 시장은 “처음 시도하는 온택트 시민과의 대화에 저녁시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면서, “시

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광주광역시, 교통안전 대책 강화한다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안전속도 5030이 조기에 정착되고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5월부터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해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 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종전 60km의 주행속도를 50km로 줄이고 교통소통에 지장 없는 이면도로 등은 30km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내 전역의 교통표지판을 5030으로 교체하고, 2년 이상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에 따라 5월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각각 4만원이 인상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주변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발견 즉시 주정차단속을 실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병행한다. 또 주요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가와 식당 등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버스전용차선을 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심 내 승용차량 운행 억제와 환경보호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한다. 지하철 공사구간과 차로가 좁은 지역의 경우 버스전용차선 지정을 해제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도 5월부터 바뀐다. 킥보드는 16세 이상 윌동기 면허 이상의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명만 탑승해야 한다.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최하 1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 자치구, 공유서비스 업체간 설치장소, 허가절차 등을 협의해 시내 주요지역에 전동킥보드 주차선을 시범 설치한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안전 정책 시행을 계기로 시민들의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성숙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전남교육청, 양성평등교육 학교 담당자 온라인 연수 실시

“디지털세대, 성차와 관계 그리고 성평등”

전남남도교육청이 ‘디지털세대, 성차와 관계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초·중·고·특수학교 양성평등업무 담당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온라인 역량 강화 연수를 마련했다.

1차 연수는 27일 서울대 여성연구소 신상숙 객원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성적 차이와 의사소통(차이와 관계 속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신상숙 연구원은 성별을 비롯한 다양한 차이들이 교차하는 관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지를 성적 차이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을 사회적 의사소통의 과제와 함께 생각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지평을 넓혀준 값진 연수였다.

제2차 온라인 연수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승희 대표가 ‘사이버성폭력과 디지털시문성’이라는 주제로 29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세대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사물을 지각하는 방법, 더 나아가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을 때도 ‘디지털’을 매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서 대표는 강연을 통해 “현재 디지털공간 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시민성이 요구되는지” 알리려 예정이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이병삼 과장은 “신상숙 연구원의 강연은 양성평등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폭넓게 사유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29일 강연은 어느 때보다 ‘디지털 시민성’교육이 필요

한 요즘 디지털문화를 발전적으로 제고할 기회를 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과 남성이 상생하는 미래민주사회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성차를 이해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하는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안/기자

광산구, ‘청년 마음치유사업’ 참여자 모집

식물치방 청년가드너 ‘나의 초록색 시간들’, 5월 4일까지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 블루 및 니트(NEET) 위기 청년들을 위한 청년 마음 치유 사업, ‘나의 초록색 시간들’에 참여할 청년 30명을 모집한다.

광산구는 2017년부터 청년이 활력 넘치고 행복한 삶의 주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 가지 유형의 청년의 몸·마음건강, 공간지원 등 청년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마음건강 분야에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대된 청년층을 위한 마음치유 사업 ‘우리동네 청년-마음소’를 기획했다.

‘우리동네 청년-마음소’ 보조사업

자로 선정된 썬시시호호(대표 이대모)는 코로나로 지친 청년들에게 일상 속에서 식물을 통한 위로와 치유를 나누는 프로그램 ‘나의 초록색 시간들’ 운영할 예정이다.

‘나의 초록색 시간들’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가드닝 키트를 통한 홈 가드닝 클래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정원을 공유하는 가드너 네트워킹, 지역에 관리되지 않은 공간을 찾아 다 같이 식물을 가꾸어보는 마을 가드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광산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만19~34세)으로 온라인으로 5월 4일까지 신청을 받는 다

김덕윤/기자

2021 청년활력프로젝트
‘나의 초록색 시간들’ 가드너를 찾습니다.

식물들과 일상을 나누는 분을 찾습니다. 일상에서 초록색 습관을 들여봄으로써 삶을 함께 바꿀 청년 가드너들을 모집합니다!

● 모집 기간: 2021년 04월 22일 ~ 05월 04일 (30명)
● 지원 자격: 광산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 (만19~34세)
● 지원 내용: 가드닝 홈 키트(식물제거판), 가드닝 박스 키트, 가드너 네트워킹
● 활동 내용: 홈 가드닝 클래스, 가드너 네트워킹, 마을 가드닝 활동

● 활동 기간: 2021년 05월 ~ 6월
● 신청 방법: 우측 QR코드
● 문의: 070-8098-4457

광산구청 기획과 | 061-797-4296

광양희망도서관, 북스타트 부모교육 지원사업 선정

5월 24일부터 우리 아이 올바른 독서법 교육

광양희망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책임있는사회문화재단의 북스타트코리아가 주관하는 ‘2021 북스타트 부모교육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2021 북스타트 부모교육 지원사업’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와 부모가 책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서, 자녀의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도서관은 강사비를 지원받아 ‘우리 아이 언어 발달, 문해력이 답이다’는 주제로 오는 5월 24일~6월 14일 매주 월요일 4회에 걸쳐 부모교육 심화 강화를 연다.

강좌는 5~9세 자녀를 둔 부모 30명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하며, 대면 강의 2회와 비대면(ZOOM 활용) 강의 2회로 구성된다.

부모교육은 김은하 ‘책과 교육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삶의 맥락

에서 언어 배우기 ▲그림 읽기가 글 읽기로 건너가는 순간 ▲글자 읽히기 부터 유창하게 읽기까지 ▲문해력 높이기 등을 부제로 부모들과 소통한다.

고근성 도서관운영과장은 “이번 강연은 언어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자녀의 독서 흥미를 유발하고 문해력을 높일 핵심비밀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강 신청은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5월 11일부터 가능하며, 강연 일정이나 궁금한 사항은 광양희망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펼치는 영유아 독서문화 운동으로, 광양시는 2009년부터 그림책 배부, 아이와 부모를 위한 독서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조기성/기자

북스타트 부모교육 심화강좌
우리 아이 언어발달 문해력이 답이다!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우리 아이 문해력은?
읽어도 ‘뭇’ 모르는 현대판 문맹, 혹시 우리 아이도?
읽지 않으려는 아이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언어교육전문가지혜하는 문해력 향상 핵심 8법

◆ 신청: 2021. 5. 11. (화) 홈페이지 선착순
운영기간: 2021. 5. 24. ~ 6. 14. (매주 월, 10:30 ~ 12:00)
대상: 5~9세 자녀를 둔 부모 30명

1회 [한정강의와 실습] “삶의 맥락에서 언어 배우기”
2회 [ZOOM 강의와 실습] “ZOOM 강의와 실습” “글자 읽기가 글 읽기로 건너가는 순간”

3회 [한정강의와 실습] “글자 익히기부터 유창하게 읽기까지”
4회 [ZOOM 강의와 실습] “문해력 높이기”

책과 교육연구소 대표 김은하
광양희망도서관 | 061-797-4296

전북도민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개시! 익산시, '느티나무 시민의 숲' 조성

도민 대상 디지털 교육 함께할 강사·서포터즈 모집

동산동 지역 유천생태습지 내 3천500㎡ 규모 조성

전라북도가 도민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함께할 강사와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전북도는 5월부터 도내 스마트폰 예매·결제,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사용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평생학습관 등을 '디지털 배움터'로 지정하고, 강사와 서포터즈를 배치하여 주민 누구나 무료로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 및 디지털 문제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도민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함께할 강사와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지난 사전모집(3.16.~4.9.) 대상자를 1차 채용을 한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추가 인원 선발을 위한 2차 모집공고가 진행된다.

교육생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과정을 설계할 디지털 강사는 전문대학 이상 IT 관련학과 졸업자나 IT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자, 정보화교육(보조강사)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중 선발한다.

강사를 보조하고 디지털 이용 관련 애로사항을 서포터즈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ICT 기본 활용소양을 갖춘 자나 강사 보조가 가능한 디지털 역량 보유자 중 선발한다.

월 70시간 강의 기준 강사는 175

만 원, 서포터즈는 100만 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강사 및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교육수행기관인 KTCS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고 지원하면 된다.

한편, 이들이 강의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기초과정, 생활과정,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스마트폰 기초 활용(앱 설치, 카톡 사용하기), 인터넷 검색, 비대면 원격교육 앱 활용 같은 디지털 기초 교육과 무인주문기 사용법(음식 주문, 영화·교통 티켓 구매, 병원 수납, 민원서류 발급), 모바일 주문·결제, 교통정보 활용,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생활교육을 비롯해 그래픽 디자인, 사무용 프로그램 활용 등 디지털 심화교육이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에서 배움터 위치를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주위에 디지털 배움터가 없는 경우, 5인 이상이 단체로 신청하여 원하는 장소(경로당, 마을회관 등)로 강사가 찾아가는 이동형 교육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의 일상인 지속되면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디지털과 친숙해지고 디지털 소

모집기간	2021.4.19(화) - 채용 완료시까지	강사·서포터즈 역할 및 자격요건
신청분야	https://recruit.ktcs.co.kr	강사: 1.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2. 교육 경험 3. 교육자로서의 자질 4.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5.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6.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교육과정	1.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2. 교육 경험 3. 교육자로서의 자질 4.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5.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6.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서포터즈: 1.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2. 교육 경험 3. 교육자로서의 자질 4.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5.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6.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
모집대상	1. 전문대학 이상 IT 관련학과 졸업자나 IT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정보화교육(보조강사)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3. 디지털 배움터 위치를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 4. 디지털 배움터 위치를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 5. 디지털 배움터 위치를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	1. 전문대학 이상 IT 관련학과 졸업자나 IT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정보화교육(보조강사)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 3. 디지털 배움터 위치를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 4. 디지털 배움터 위치를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 5. 디지털 배움터 위치를 조회하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문의처	KTCS 교육지원팀 020-220-1111	KTCS 교육지원팀 020-220-1111

외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과기정통

부의 지원을 받아 전라북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승일기자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느티나무 시민의 숲'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 나무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느티나무 시민의 숲은 동산동 지역 유천생태습지 3천500㎡에 조성되며 식재될 느티나무는 산림청에서 밀레니엄 나무로 선정한 만큼 긴 수명과 생김새, 우수 목재 등 모든 면에서 으뜸인 나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일부 느티나무를 해당 생태습지에 식재했으며 이번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에게 오는 5월 중 나무를 배정해 숲을 완성할 계획이다.

나무 분양신청은 이달 말부터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에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 신청이 가능

하며, 1구좌에 20만원으로 150구좌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내 나무 심기 운동'이란 출생,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길 원하는 시민이 헌수나 기부금을 통해 내 나무를 심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민간참여 운동이다.

지난 2019년에는 인화공원 내 '옛뚝이 시민의 숲'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유천생태습지 내 '재난위극복 시민의 숲'에 이어 세 번째 숲 조성을 시행하고 있다.

김근섭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이사장은 "자라나는 후세에게 마음껏 숲 쉬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도록 한그루 느티나무로 지역 백년대계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소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익산시, '느티나무 시민의 숲' 조성

관광거점도시 전주 브랜드 30일 사전 공개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느티나무 시민의 숲'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 나무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느티나무 시민의 숲은 동산동 지역 유천생태습지 3천500㎡에 조성되며 식재될 느티나무는 산림청에서 밀레니엄 나무로 선정한 만큼 긴 수명과 생김새, 우수 목재 등 모든 면에서 으뜸인 나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일부 느티나무를 해당 생태습지에 식재했으며 이번 운동에 동참하는 시민에게 오는 5월 중 나무를 배정해 숲을 완성할 계획이다.

나무 분양신청은 이달 말부터 (사)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 신청이 가능하며, 1구좌에 20만원으로 150구좌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내 나무 심기 운동'이란 출생,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길 원하는 시민이 헌수나 기부금을 통해 내 나무를 심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민간참여 운동이다. 지난 2019년에는 인화공원 내 '옛뚝이 시민의 숲'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유천생태습지 내 '재난위극복 시민의 숲'에 이어 세 번째 숲 조성을 시행하고 있다.

김근섭 (사)푸른익산가꾸기운동본부 이사장은 "자라나는 후세에게 마



음껏 숲 쉬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도록 한그루 느티나무로 지역 백년대계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소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대표할 브랜드(BI)가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 첫 선을 보인다.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을 활용해 전주국제영화제작소 주차장에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관광브랜드 'YOUR TASTE JEONJU'를 사전에 공개하는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하반기 공식 런칭을 앞두고 열리는 이 행사는 전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브랜드의 콘셉트와 패턴, 이미지 등을 사전 공개해 관광거점도시 전주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높이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에 선보이게 되는 관광브랜드

(I) 'YOUR TASTE JEONJU'에는 '여행에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곳, 당신의 전주'라는 의미가 담겼으며, 합죽선과 기와, 전통담, 단청 등 전통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개발됐다.

관광브랜드 사전공개 행사에서는 전주 음식을 받는 디지털 체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증정되는 음식 상품으로는 소부당의 '전주 북평이떡'과 '미니 생크림 단팻빵', (썬)전년누리의 '우리밀 수제초코파이', (썬)디자인농부의 '배리콩콩(선식)' 등 전주에서 생산되는 10가지 상품이 준비됐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사전공개 행사 이후 관광거점도시 전주 브랜드를 런칭하는 행사



를 열 계획"이라며 "제작된 관광브랜드는 관광 안내 책자와 기념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브랜드링하고 입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 강소연구 개발특구

공주시, '국립충청국악원유치' 세종시와힘모은다!

국립국악원 충청 분원 설립 위한 세종시와의 협력 도모

공주시는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위한 세종시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5월 4일 세종 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정섭 시장은 28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의 당위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종시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며, "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해 세종시와 공주시가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환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장의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신규 소속국악원의 설립 필요성'과 최해진 목원대 교수의 '충청권 전통문화예술 결집을 위한 국립충청국악원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남요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송혜진 숙명여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김해숙 전 국립국악원장, 주재근 한양대 교수 등이 참여해 국립충청국악원 설립과 충청도 국악

의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공주시 유튜브를 통해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위해 민·관·정이 주축이 된 다양한 유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아울러, 국악 상설공연과 국악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국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정섭 시장은 "앞으로도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국악 저변확대를 위한 행사 및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유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전·세종·충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국립국악원 충청 분원 설립!! 충청도 국악의 미래!!

"문화 분권을 통한 지역 전통문화 발전"

국립국악원 충청 분원 설립을 위한 세종-공주 상생협력 세미나

■ 2021년 5월 4일(화) 오후 2시
■ 세종 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실(1층)

【세미나 진행】

- ▶ 발제 (주제발표)
 - 발 제 1.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신규 소속국악원의 설립 필요성 (이형환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장)
 - 발 제 2. 충청권 전통문화예술 결집을 위한 국립충청국악원의 역할 (최해진 목원대학교 교수)
- ▶ 지정토론
 - 좌 장 : 이형환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장
 - 토 론 : 남요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 주재근 한양대학교 대표 (한양대 국악과 겸임교수) 송혜진 숙명여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김해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명예교수 (전 국립국악원장)

주최 충청남도 공주시 후원 세종특별자치시

대전대덕구 오정동 주민자치회, 2021년도 대전광역시 시민공유공간 공모 선정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앞장서

공유재산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무상 임대해 이뤄진 민간협력형 대표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영태 회장은 "우리 일대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이웃 간 단독한 정을 다시 회복해 정답고 따뜻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을 사랑방 공간을 멋있게 만들어 보겠다"며 "이번 사업을 위해 유휴공간을 적극 내어준 대덕구청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 박정현 구정장은 "지난해 전체 동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주민자치라는 싹을 틔웠는데, 올해 오정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주민자치 1번지 오정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강원도청, 수출위기 극복위해 강원-제주 손잡고 일본시장 공동 마케팅 나선다.

청정지역 브랜드로 일본 수출 마케팅 프로모션 및 판로개척 공동추진

공주시는 온라인으로 즐기는 '2021 온-택트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를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개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한반도에 구석기 문화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귀중한 유적이 발굴된 공주 석장리 일원에서 매년 봄 개최해 오던 구석기축제를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택트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석장리 구석기 스마트 생존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구석기 자원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콘텐츠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우선, 지난해 백제문화제 등에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온라인 퀴즈대회가 5월 5일 저녁 7시 '집콕 라이브! 구석기 골든벨'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 전국 가족단위 100팀이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으로 연결돼 한 치의 양보 없는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개그맨 이승윤과 일반인 가족 2팀이 석장리박물관에서 펼치는 1박 2일 동안의 생존기 '나는 구석기 사

이다'도 빼놓을 수 없다. 불 피우기, 석장리박물관을 배경으로 사라진

2021 온-택트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2021. 5. 5 ~ 5. 8 (4일간)

주최 : 공주시 주관 :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사냥, 낚시, 채집 등 구석기인의 삶을 실감나게 체험하는 시간으로 공주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유품을 찾아나서는 온라인 발탈출 게임과 개그맨 세프 오정태와 함께 공주시 특산품인 알밤한우를 이용

해 요리를 만들어보는 시간 등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상방향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또한, 석장리 유물 발견 과정을 알기 쉽게 다룬 미니다큐와 석장리 박물관 상설전시관을 3D로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 특별기획 전 '선사인의 취향' 등 교육적 측면을 가미한 콘텐츠도 눈여겨볼만 하다.

이와 함께 시는 비록 온-택트 축제로 개최되지만 석장리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내 전시관 입장을 시간당 70명으로 제한하고 음식물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문화축제인 석장리 구석기축제가 올해는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개최되지만,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알차고 풍성하게 마련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및 정책모니터링으로 여성 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제안

속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워크숍을 개최하고 역량강화와 정책모니터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워크숍은 "안전하고 깨끗한 여성친화적 미래도시 속초 조성"이라는 추진전략으로 정책 모니터링 및 발굴 과제 관련 교육,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도시 속초 조성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시민참여단은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지원확대 방안 제안, 학교 앞 통학로 안전한 환경을 위한 모니터링, 남성 돌봄권 확대 및 여성 돌봄노동자, 가족돌봄자 지원 방안 발굴, 방범용 CCTV 및 로고젝터 설치 필요지역 범죄취약지 사전 조사,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지원 발굴 등 주요 세부과제에 대한 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속초시는 시민참여단의 과제 활동 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속초시 전 부서와 공유하여 여성 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속초시는 2020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부시장을단장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22개부서 43개과제에 22,11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성



친화도시 지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로고 제타 설치, 공공청사의 여성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방지를 위한 안심스크린 시범 설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간 보행 확보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 장치 마련하는 등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재은/기자

생명의 소리를 들어봐! 2021 비대면 원주어린이날 큰잔치!!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채널 통해 진행

원주시는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원주어린이날큰잔치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021 비대면 원주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명의 소리를 들어봐'를 테마로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활동, 이벤트 등이 유튜브 채널 '원주어린이날큰잔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신청을 받아 각 가정에서 배송된 선물 꾸러미(만들기 키트) 제작 영상을 비롯해 사전 녹화된 서커스 및 마술, 인형극, 방송 댄스, 앙상블 등 11개 팀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상영된다.

아울러 생명을 주제로 한 어린이 UCC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해 우수작에 대한 상영과 더불어 상품권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참가 인증샷, 퀴즈 및 삼합시 이벤트, 어린이날 응원 댓글 선정 상품권 지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취소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올해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하루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1 원주어린이날큰잔치

생명의 소리를 들어봐

2021. 5. 5 (수) 10:00~

유튜브 채널 원주어린이날큰잔치

어린이 UCC contest

2021 원주어린이날큰잔치

평창군, "평창 아트박스, 평창골 아트살롱" 문화예술의 장을 열다!!

평창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운영사업'과 '2021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월부터 (재)평창군문화예술재단 주관 하에 해당사업을 진행한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흥미로운 예술놀이터 "평창 아트박스"'는 예술 장르별 이론과 체험, 해설이 있는 공연감상을 재미있게 풀어낸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고의 강사진이 연극, 뮤지컬, 시각예술(미술), 무용 4개 과정을 5월 1일부터 평창군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하며, 평창군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을 포함한 가족은 누구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예술라운지 "평창골 아트살롱"'은 클래식음악(바로크시대), 연극과 영화 2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예술 장르에 대한 이론과 체험이 결합된 이해와 공연감상으로 재미있게 구성되어 5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예술교육을 주관하는 평창군문화예술재단 김도영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수강생들이 배움의 기쁨과 즐거운 문화예술 향유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군

202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평창군 (예술놀이터) 문화예술의 장을 열다!!

예술이 재미있고 즐거운 평창에서! 문화예술의 장을 열다!!

7기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2021. 5. 1 (토) 10:00~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민에게 문화예술 혜택을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문화재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광주체육고 자전거부,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 종합우승

광주체육고 자전거부가 지난 17~22일 6일 동안 전라남도 나주시 사이클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 여자고등부 경기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7일 광주체육고에 따르면 광주체육고 2학년 천윤영 학생이 개인주발 2Km 경기와 스크래치5km 경기에서 우승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광주체육고 2학년 김보민 학생도 경륜 경기와 제외경기에서 우승해 2관왕의 영광을 얻었다. 광주체육고 이소진 학생은 템포레이스5km 경기에서 우승해 금메달 1개를, 스크래치5km 경기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광주체육고 3학년 이소진, 2학년 김보민·천윤영, 1학년 박예린 학생이 동반 출전한 단체스프린터 경기에서는 준우승해 은메달 1개를 추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체육고 2학년 김보민 학생이 최우수신인상을,

광주체육고 황규동 감독이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한편 동반 출전한 광주체육중은 단체추발2km 경기에서 3위, 단체스프린터 경기에서 3위를 차지해 여자중등부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뒀다.

광주체육고 자전거부 김철민 지도자는 “코로나19로 운동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믿고 따라와 좋은 성적을 거둔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도 제50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01회 전국체육대회까지 더 열심히 지도해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선물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체육중 자전거부 감독이기도 한 광주자전거연맹 최기영 이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스포츠계가 많이 위축된 환경 속에서 광주자전거연맹을 새롭게 구성했고, 관계자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지급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변 확대와 우수선수 발굴을 통해



자전거부가 광주체육중·고등학교의 대표 종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체육고 김성남 교장은 “오랫동안 광주자전거연맹이 구성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선수와 지도자들의 열정적인 연계 훈련으로

광주체육고는 고등부 종합우승을, 광주체육중은 중등부 종합 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며 “앞으로도 우리 광주체육고는 광주체육중과 힘을 모아 자전거부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하동군, 이병주 선생 유족, 장학기금 1000만원 쾌척

하동군장학재단, 한국문단 거장 나림 이병주 선생 율해 한다사 대상 수상

(재)하동군장학재단은 한국문학사의 거장 나림 이병주 선생의 유족이 선친의 고향 청소년들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장학기금은 이병주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선생이 율해 한다사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15일 군민의 날 행사 때 유족을 대표해 장남 이권기씨(경성대학교 명예교수)가 받은 상금 일부를 내놓은 것이다.

이병주 선생은 1921년 하동군 북천면 출신으로 일본 메이지대 문예과에서 수학하고 진주 농과대학(현 경상대), 해인대학(현 경남대) 교수를 거쳐 국제신문 주필로 활동했다.

1965년 '세대'에 중편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한 후 '관부연락선', '지리산', '산하', '행복어사전' 등 80여편의 중·장편소설을 집필하는 등 한국문학사에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

특히 '지리산'은 일제강점기부터 분단에 이르기까지 민족사의 굴곡스러운 시기에 북천면과 지리산을 배경으로 지식인 청년들의 고뇌와 파란만장한 운명을 기록해 현대문학에 큰 획을 그었다.

이권기 교수는 “살아생전에 늘



고향을 흠모하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작으나마 장학기금을 내놓게 됐다”며 “선친의 숭고한 뜻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동의 미래 인재들에게 꿈을 키우는 희망의 향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양호 이사장은 “나림 이병주 선생의 한다사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부하신 숭고한 뜻과 고귀한 의미를 잘 받들어 선생께서 지식인 청년들의 고뇌와 파란만장한 운명을 기록해 현대문학에 큰 획을 그었다.”

최광용기자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익산 나눔공간' 200만원 기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익산시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는데 써 달라며 27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나눔공간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기부된 성금은 익산 나눔공간을 이용하는 위기가구를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노총 익산시지부는 제조·공공 부문 소속 13개 노동조합(동우화인켄, 삼양식품, OCI, 한국전력공사익산지사, 금강공사, 두산전자, 익산시공무직, 벽산, 하이트진로, 세명테크, 두산퓨얼셀, 솔루스첨단소재, 실로암사랑요양병원)이 성금 모금 릴레이를 펼치며 기부에 참여했다.

전세성 의장은 “나눔공간에서 위기가구를 돕는다는 소식을 듣고 13개 업체의 노동조합이 선포 기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져있는 위기가구가 다시 일어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

셔서 감사하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으로 생활용품과 식품을 구입해 나눔공간 이용자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GH, 전승취약 국가무형문화재 후원

도내 전승취약 무형문화재 3인에 2년간 전승활동 후원금 3천만원 지원

GH(사장 이현욱)는 멸실위기에 처한 전승취약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한국문화재단과 기부약정을 체결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GH는 2018년부터 전승취약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후원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는 국가무형문화재 중 전승 취약종목인 매듭장과 두석장 보유자 3인(정봉섭, 김혜순, 박문열)을 선정하여 2년간 총 3천여 만원의 전승활동 지원금을 후원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인 매듭장은 실을 맺고 조여 하나의 무늬를 만드는 공예 기술이다. 정봉섭 보유자는 초대 매듭장 보유자인 부모님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으며, 딸과 손녀까지 매듭을 가업으로 잇고 있다. 또 다른 매듭장 김혜순 보유자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의 강사로 활동하고 한국매듭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인 두석장은 목가구의 결합 부분과 자물쇠 등의 금속제 장식을 만드는 장인으로, 박문열 보유자는 경기도 소재의 '심경 장석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GH는 2010년부터 문화재단과 '문화재 지킴이' 협약을 체결해 협약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후원활동과 더불어 지역문화재 정화활동과 아동 대상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현욱 GH 사장은 “국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후원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광주효덕초, 제17회 꿈나무 전국수영대회 금 3개 획득

광주효덕초가 지난 22~26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7회 꿈나무 전국수영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27일 광주효덕초에 따르면 6학년 유석민 학생은 남자초등부 자유형 50m, 200m 경기에 출전해 우수한 기록으로 금메달 2개를 획득했다. 6학년 이준 학생도 남자초등부 접영 5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효덕초 수영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실전경험이 부족했다. 거점 훈련장인 염주실내수영장도 개보수 공사로 이용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은 타 훈련장 임시 사용하며 묵묵히 실력을 쌓아나갔다.

광주효덕초 6학년 유석민 학생은 “대회도 취소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학교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며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효덕초 한 학부모는 “그동안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부모로서 도움을 주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보람 있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광주효덕초 수영부 이진경 감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훈련했고,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재능과 꿈을 키우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효덕초 김해숙 교장은 “코로나19로 500여 일 만에 열린 전국수영 꿈나무 1,000명 이상이 참가한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더욱 값지다”며 “광주효덕초 수영부 학생들이 다가오는 전국 소년체전에서도 우리 광주지역을 대표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에 고석규 전 총장

전남 미래 인재 육성도민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기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이 고석규 전 목포대학교 총장을 초대 원장으로 임용했다.

고석규 초대 원장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23년간 목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역 인재 양성에 힘썼다. 목포대학교 총장과 전국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전남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효율적인

영을 위해 지난해 7월 통합 출범, 전남도 차지행정국장이 진흥원장을 겸임하다 이날 초대 원장을 임용했다.

고석규 원장은 대학에서 직접 학생을 가르쳐 온 현장 전문가로서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전남 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을 한층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은 전남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사업과 함께 문해교육 등 도민 평생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김영안기자



전주시, 전주시청 사이클부 양진식 전국대회 금빛 질주

전주시청 사이클부,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 획득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부 선수들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나주 벨로드롬에서 열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 남자 일반부에 15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양진식 선수가 1lap(S/S) 종목에서 금메달을, 최우성 선수가 경륜 종목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3명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춘 단체 스프린트에서는 4위의 성적을 거뒀다.

소속직 감독은 “코로나19 등 어려

운 여건에서도 부단한 연습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정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값진 메달로 전주를 빛내주신 전주시 사이클부에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사이클부는 지난 2006년 창단해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돼 매 대회에서 꾸준한 성



적을 기록해오고 있다.

김승일기자

의정부시, 대표 비보이단 전국 비보이 대회 우승

의정부시 대표 비보이단은 4월 24일 부천에서 열린 제7회 부천 전국 비보이 대회 2대2 부문(배영수, 김종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부천시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브레이크킹이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후 국내에서 열리는 첫 경연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내 최정상 8개 팀을 초청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의정부시 대표 비보이단은 2대2 부문 8강에서 플로우엘크루를 3대2로 이긴 뒤, 준결승전 브레이크퀵비전과 대결에서 5대0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승리했다. 결승전에서는 지난해까지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으

로 활동한 캠프블루크루와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하여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황정우 의정부브레이크킹협회장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막강한 팀들을 제압하고 거머쥔 우승이라 더욱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에서 올림픽 국가대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우승은 의정부시 대표 비보이단 육성을 위한 의정부브레이크킹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첫 성과물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브레이크퀵 올림픽 국가대표 배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제99회 논산시 어린이날 행복잔치', 올해는 온택트로 만나요

논산시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학부모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제99회 논산시 어린이날 행복잔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힐링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온택트로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논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논산다'를 통해 실시간 방송한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황명선 논산시장과 관내 기관장의 축하 영상과 모범어린이 표창, 홀로그램 매직 퍼포먼스 등을 통해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행사의 막을 올린다.

이어 ▲초콜릿메이킹 킷세트 ▲키즈樂(락) 랜선 장기자랑 ▲요리 쿡 조리쿡 랜선 요리교실 ▲UCC챌린지 공모전 등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은 물론 판타스틱 변검쇼, 애니메이션OST 콘서트 등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볼거리가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은 어린이날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접수하며,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들에게는 전원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행사 당일 줌(ZOOM)을 통해 참여자들 간 실시간으로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프라인 축제와 같은 생동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어린이들이 학교 밖 활동, 체험, 공연, 놀거리 등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신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서구, 문화공간에서 꽃피우는 주민의 이야기 모임 문화도시추진단, '서곶시민살롱' 프로그램 운영

예비문화도시사업 '서곶시민살롱' 총 15명의 살롱지기 선정

서구문화도시추진단은 주민의 생활권역 속 다양한 공간과의 접점을 만들고 '살롱지기'가 주민과 대화하는 '서곶시민살롱'을 5월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도시추진단은 지난 14일 필사모임, 인형극, 취미 소개, 난타, 네일아트 등 다채로운 형태로 '서곶시민살롱'을 이끌어갈 '살롱지기' 15명을 서구문화도시추진위원회 주민위원들의 참여로 이뤄진 심사에서 선정했다.

또한, 지난 17일 살롱지기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프로그램 내용과 실행계획을 공유했다. 한 살롱지기는 "코로나로 인해 지역 주민 간의 커뮤니티가 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주민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며, "살롱지로서 주민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오는 살롱프로그램은 오는 5월부터 공간별 일정에 맞춰서 각 10회차씩 운영되며, 서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서곶시민살롱'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도시추진단 SNS와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중남기자



영화 음향 분야 거장들, 전주서 강연

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5월 1~3일 음향 전문가 강연과 영화 효과음원 컨퍼런스 개최

영화 '기생충'의 음향감독인 최태영 대표 등 한국영화계 음향 분야 거장들이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전주를 찾는다.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케이사운드 마스터 클래스'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먼저 케이사운드 마스터 클래스의 경우 다음 달 1일과 2일 양일간 영화의 거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음향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강연으로 열린다.

1일 오후 3시 CGV전주고사점에서는 오스카 4관왕의 영예를 얻은 영화 '기생충'의 음향감독인 최태영 라이브 대표와 함께 '사운드 디자인과 내러티브'를 주제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

2일 오후 3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는 한국1호 음향 아티스트로 알려진 양대호 폴리아티스트를 만나 '소리의 창조, 폴리의 세계'를 주제로 영화 효과음원에 대해 소통하게 된다.

또한 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컨퍼런스'도 진행된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의 활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채로운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케이사운드 라이브러리 유튜브 채널과 전주국제영화제 네이버 V라이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 콘텐츠사업단 음향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량 수입에 의존 중인 영화 효과음원의 국산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전통소리, 자연의 소리 등 총 7개 분야 3만여 건의 영화 효과음원이 구축됐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케이사운드 행사를 통해 한국적 소리 자산과 정서를 담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구축 사업'이 널리 알려지는 것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음향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DB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성남시, 어린이날 '과학실험실' '구름빵2' 온라인으로 만나요

"지켜줄게 아이야" 사전 신청한최소 인원만참여, 유튜브 생방송



성남시는 오는 5월 5일 '제99회 성남 어린이날 행사'를 온라인 만남으로 진행한다.

"지켜줄게 아이야"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우리집 과학실험실', 동요 콘서트 '구름빵2' 자동차 극장 등 두 가지로 꾸며진다.

우리집 과학실험실은 사전 신청·추첨을 마친 600명의 어린이와 유튜브 밥데이일 이 날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화상회의 앱 줌(zoom)으로 만나 과학 놀이 도구 '재주넘'을 만든다.

조립과정을 통해 물체의 무게 중심과 이동, 공중회전의 원리를 배운다.

어린이가 있는 각 가정에서 과학실험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청 온 누리에서 진행하는 전 과정을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하고, 이날 오후 3시에는 녹화방송분을 송출한다.

구름빵2 자동차 극장은 이날 같은 시간(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중원구 금광2동 신구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한다.

사전 신청·추첨을 마친 영유아 80가정이 자동차를 타고 행사장에 입장해 관람한다.

구름빵2 생방송은 성남시어린이집 연합회 유튜브, 녹화방송은 이날 오후 4시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다.

지난해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어린이날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올해는 최소 인원만 참여하는 비대면으로 개최해 어린이날의 즐거움을 전하기로 했다.

최근수기자

익산시, 원도심 '축제 기획학교' 운영

5월 10일까지 도시재생대학 '축제 기획학교' 교육생 모집

익산시는 원도심인 중앙동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축제 기획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중앙동 지역의 특색을 활용해 진행되는 도시재생대학 '여행자 도시 익산'을 위한 축제 기획학교'교육생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원도심의 특색과 스토리가 담긴 축제 기획 등에 관심이 있는 지역 거주자면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음식·식품 문화축제 기획반(9강)'과 '근대역사·문화·예술축제 기획반(9강)' 등 2개반으로 운영된다. 각 15명씩 모집하며 중복 수감이 가능하다.

교육생들은 국내 유명 축제 전문가들로부터 이론 수업과 실습 교육을 받으며 축제를 어떻게 기획하는지 배울 수 있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단순히 먹고 즐기는 축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기획자, 실행자, 참여자 모두가 소통하며 공감하는 등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참여와 재미까지 더한 중앙동만의 축제 컨셉을 직접 만들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익산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들을 기획하는 지역 축제 전문 기획자로 활동하는 밀거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 참여한 분들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컨셉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바탕으로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시점에 익산시 중앙동만의 특색을 갖춘 행복한 축제가 열리는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광주광역시 시립도서관, '도서관 문화마당'참가자 모집

5월22일~31일까지, '잠시 서(書)행'주제로 인형극·작가 강연 등 운영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은 시교육청과 함께 '2021년 제9회 도서관 문화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역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단체, 동네 책방 등 42개 기관이 참여해 '잠시 서(書)행'이라는 주제로 5월2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과 참여기관에서 운영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에 따라 29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 기관별 소규모 분산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감으로 느끼는 독서의 즐거움을 전달하기 위해 ▲인형극 '숙인수에 걸린 피노토끼'(5월22일 오후 2시~3시 무등도서관) ▲'독서머리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최승필 작가 강연(5월23일 오후 2시~3시30분 무등도서관) ▲'우리는 우리를 아는가'라는 주제로 박용현 작가 강연(5월24일 오후 2시~3시30분 전일빌딩245) ▲'내 인생의 책들, 영화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김중혁 작가 강연(5월29일 오후 2시~3시30분 이야기꽃도서관)을 진행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광주시대대표도서관 홈페이지와 광주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볼 수 있다.

또한 ▲지역 도서관과 독서단체, 동네책방 등이 책과 체험을 접목한 37개 체험프로그램을 연령대별로 온라인(zoom 이용) 및 참여기관별



소규모 대면 운영하고 ▲광주시대표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소개, 4차 산업혁명 관련 추천도서 안내 등 온라인 콘텐츠도 볼 수 있다.

최경화 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 문화마당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전하고 도서관이 시민 삶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덕옥기자

최근 5년(2015~2019), 울산 사업체 변화 동향 커피전문점·편의점 등 '생활밀접업종' 증가

신발소매업·옷가게·노래방 등은 감소

울산시가 최근 5년간(2015~2019) 지역 내 사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업과 서비스업 등 시민 생활 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체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1.4%)에서 전년 대비 증가폭이 컸다. △산업구조별 종사자 구성도 58.61%, '2차 산업'이 22만 511명으로 41.36%, '1차 산업'이 178명으로 0.03% 순이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커피전문점'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일 년 새 각각 235개, 202개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노래연습장'이나 '컴퓨터게임방(PC방)' '손해보합업'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금정구, 배달앱 '미로장터' 날개 달고 서동미로시장 도약

금정구 전통시장 배송, 앱 출시 한달만에 배로 늘어

최근 4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분야는 △생활밀접업종이었다. 2019년 기준 울산의 생활밀접업종은 4만 3,789개로 전체 사업체의 50.3% 차지했으며, 세부업종 구성은 '음식점' 1만 6,635개(38.0%), '소매업' 9,349개(21.4%), '생활서비스' 8,219개(18.8%) 순이었다.

'시장 상품 클릭하면 90분 만에 신선 식품이 내 집으로 온다.' 전통시장 배달앱 미로장터가 출시 한 달 만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최근 모바일 장보기 배달앱 '미로장터' 출시 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가 배로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소매업'에서는 '신발 소매업'이 31개(12.1%) 감소, '여가생활업'에서는 '노래방'이 62개(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역 내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예측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산업별 사업체 분포와 종사자 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남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순항

약 28%의 기업 투자유치(투자협약) 달성... 다수 기업과 협상중

남원시가 장기적으로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마련에 힘쓰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동을 전개한 결과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를 제조하는 ㈜CK안전유리와 모듈러 교실을 생산하는 ㈜대승엠엔에스,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LFF 등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남원시 (우)경원소프트기계 / (우)발리코퍼레이션 / (우)수앤지니어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 체결 행사 모습. 앞줄 왼쪽부터 남원시장 이주호 시장, 임기복 시장, 임기복 시장, 임기복 시장, 임기복 시장, 임기복 시장, 임기복 시장, 임기복 시장. 남원시 (우)경원소프트기계, (우)발리코퍼레이션, (우)수앤지니어링 등 4개 기업이 남원일반산업단지에서 총 272억원, 8만 8천여㎡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고 전라북도 및 남원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공공조달시장 중기계품 구매목표 113.4조원, 사상 최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기업 등 849개 공공기관의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지난해 목표 103.4조원(전체 구매계획 133.2조원의 77.6%) 대비 10조원 증가한 113.4조원(전체 구매계획 145.4조원의 78%)으로 2006년 제도 시행 이후 최고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50% 이상) 미달 기관이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9개로 대폭 줄었다. 또한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총구매액의 8% 이상)가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



77.6%를 초과 달성했으며, 구매금액으로는 116.3조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상위 20대 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순이며, 중기부가 '18년 이후 매년 선정하는 별도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 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000억원 이상)에 의한 '20년 구매 우수기관'은 충북 괴산군, 인천광역시, 화성시, 경북 교육청, 서울특별시 등이 선정됐다.

양주시·(주)아성다이소, 은남일반산업단지 투자MOU·고용협약 체결

양주시는 27일 양주시청에서 ㈜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와 함께 양주형 뉴딜정책에 따라 E-commerce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물류허브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고용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총사업비 3천 500억원을 투입, 은현면 도하리와 남면 상수리 일원 99만 2천㎡ 부지에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해 전자·전기·기타 기계·물류 등 10개 유망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상품공급 협력업체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이번 협약으로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에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다이소 양주허브센터'를 안착시켜 경기북부 물류 거점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기업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광명동굴, 안양천 푸드트럭 운영 '일자리' 먹거리 지원

광명시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광명동굴(4대)과 안양천해물리광장(2대) 푸드트럭 운영자 6명을 모집한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으로 광명시 청년(만18세~만39세), 코로나 19로 폐업자, 식품조리자격증소지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자 소중함 창업 일거리를 마련했다"며 "광명동굴과 안양천을 찾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희/기자

계룡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동탄호수공원 리슈빌' 30일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선보여

▲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 야경투시도. 출처 : 계룡건설 ©

- 홈페이지에서 단지 배치, 특장점 등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동탄호수공원, 롯데백화점(예정), 호연초 등 생활인프라 풍부
- 5월 6일(목) 특별공급 청약접수, 5월 7일(금) 일반공급 청약접수 받아
- 정당계약 5월 24일(월)부터 5월 30일(일)까지 7일간 홍보관에서 진행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해

계룡건설이 30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선보이는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입차인모집에 나선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이 아닌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유니트별

가상현실(VR) 영상과 입지, 단지 특장점, 배치, 커뮤니티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라고 말했다.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87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전용 74㎡·84㎡ 중소형 면적으로 총 762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세대 수는 △74㎡A 153가구 △74㎡B 29가구 △84㎡A 282가구 △84㎡B 160가구 △84㎡C 56가구 △84㎡D 82가구다.

향후 청약일정으로는 오는 5월 6일(목)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5월 7일(금) 일반공급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3일(목) 진행되며, 정당계약은 5월 24일(월)부터 30일(일)까지 7일간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은 청약동장 유무, 소득수준, 당첨이력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공지

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올해 10월 입주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장 10년(2년마다 계약갱신)동안 거주 가능하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며, 취득세, 보유세 부담이 없다.

■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남향 위주 배치...현관 팬트리, 알파룸 등 넓은 수납공간 확보

단지는 먼저 남향 위주로 구성돼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 현관 팬트리, 알파룸 등을 통해 넓은 수납공간을 확보했으며 주방에도 동선을 고려한 'ㄱ'자형 주방 등을 적용해 공간활용성을 높였다.

74㎡A 타입의 경우 4베이 맞춤형 판상형 구조로 자연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며 캐리어, 캠핑·스포츠 용품 등 부피가 있어 보관이 쉽지 않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현관 팬트리를 제공한다. 안방에 위치한 알파룸은 창이 나있어 기존 알파룸과 달리 어둡지 않고 채광과 환기 가능한 하나의 공간으로 드레스룸이나 취미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장에는 무선AP가 설치돼 있어 별도의 무선 공유기 없이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다.

84㎡A 타입은 74㎡A 타입과 마찬가지로 4베이 맞춤형 판상형 구조지만 74㎡A 타입에 없는 주방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이 시공된다. 주방팬트리는 시스템 선반을 설치 주방용품이나 큰 냄비, 대용량 식재료까지 다양하게 분류해서 수납이 가능하며 팬트리 내부 천장에 LED등을 설치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안방 드레스룸에도 'ㄱ'자로 시스템 선반이 갖춰져 있어 옷은 물론이고 캐리어와 같은 부피가 있는 물건도 수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은 교통여건 등 생활인프라가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동탄대로, 동탄순환대로 등 동탄2신도시의 주요 도로망이 있어 이를 통해 SRT 동탄역,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광역

교통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위치한 동탄역의 경우 서울 2호선 삼성역까지 약 2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광역철도(GTX) A노선이 2023년경 개통될 예정이라 서울 강남권 접근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육여건도 좋다. 단지 바로 앞에 호연초를 품은 초품아 아파트로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하며, 인근에 서연중·고, 동탄7고(예정)가 위치해 우수한 학군도 갖췄다.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이란 단지 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탄 호수공원과 송동공원이 가까이 있다. 축구장 105개 면적인 75만여㎡ 규모의 호수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도심공원의 송동공원도 주변에 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앞으로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해 있으며 롯데백화점(예정), 이마트 트레이더스(예정) 등 대형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분양 관계자는 "동탄신도시는 이

전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 온 인기 지역이라 매매가와 전세가 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내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은 청약제한이 없고 비용부담을 덜어낸 민간임대주택으로 인기지역인 동탄신도시에 빠르게 보급자리 마련을 원하는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서둘러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 홍보관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 종은프라자 2층에 위치한다. 홍보관은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 서만 방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발생국가 방문자, 발열, 호흡기 환자, 노약자 및 영유아, 마스크 미착용자 등은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문의전화 : 1577-6708
홈페이지 : <http://hosu-richeville.co.kr/>

김남주기자



동탄 호수공원 리슈빌

대방건설,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사이버 모델하우스 29일 오픈!

- 트렌디해진 주상복합, 대방건설만의 특화 설계

- 최고의 입지에 교통호재를 더한 아파트
-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로또청약 인기

대방건설은 이달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대규모 주거복합단지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이하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에 나선다.

'디에트르'는 대방건설의 아파트, 주상복합을 아우르는 신규 론칭 브랜드로 금년부터 김포마송, 파주운정, 화성동탄 등 전국 각지 약 20여개 현장을 분양 예정하고 있으며 화성동탄 지역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

스티지'는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업무복합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6층, 지상 49층, 아파트 3개동, 오피스텔 1개동, 오피스1개동 총 5개동(상업시설포함)으로 구성된 대규모 주거복합단지이다. 아파트531세대 ▲84㎡A 184세대, ▲84㎡B 186세대, ▲102㎡A 81세대, ▲102㎡B 80세대, 오피스텔 323실(전용 75, 84㎡)로 구성된다.

동탄2신도시는 GTX-A노선 작공과 인덕원선, 트램 등의 굵직한 각종 교통 호재로 인해 2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지역중 하나다. 특히 동탄역 초역세권 마지막 부지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디에트르'는 동탄신도시 내 최종심인 동탄역과 현재 진행중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완성되면 그 상부가 공

원으로 조성되어 도보 역세권이 가능하여 최고의 입지에 이어지는 교통호재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현재 운행 중인 동탄역 SRT 뿐만 아니라 GTX-A(2024년 예정), 인덕원선(2026년 예정), 트램(2027년 예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 등 주변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바로 옆으로는 여울공원과 오산천 생태 테마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며 있고 이케아, 코스트코, 한림대 성심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근 롯데백화점(예정), 이마트 트레이더스(예정) 등이 예정 되어있어 일상생활이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로는 입주민 건

강에 도움을 주는 휘트니스 클럽,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있으며, 목욕탕, 사우나실, 북 카페, 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을 갖췄다. 또한 맞춤형 테마 놀이터, 영·유아놀이 놀이공간, 야외운동기구로 조성된 웰니스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현대BS&C가 공급한 '동탄역 헤리엇'은 지난해 평균 149.46대 1, 최고 388.32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된 바 있다. 앞서 2018년에 공급된 '동탄역 금성백조 에미지 3차'는 평균 106.8대 1의 청약경쟁률로 마감에 성공했다.

이런 시장 상황속에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84A·84B·102A·102B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타입이 서비스 면적

을 극대화하는 혁신적 평면 설계가 적용됐다. 실용적인 3Bay 평면 및 뛰어난 공간 활용성의 알파룸, 팬트리, 광폭거실, 우물형 천정과 등을 구성하여 주거편의와 개방감있는 설계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방건설은 이번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의 견본주택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100% 사이버로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http://detr-d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단지의 사이버 견본주택에 안내영상과 VR투어 서비스가 제공되며 평면과 옵션, 인테리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입별 유니트의 모습도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다.

청약일정은 5월 10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화) 1순위, 12일(수) 2순위 청약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8일(화)이며, 정당 계약은 5월 31일(월)~6월 3일(목)까지 나흘간 사전예약제를 통해 진행된다.

또한 새로운 대체 주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 분양 완료 후 6월중 공급될 예정이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대비 청약조건이 자유롭고 진입장벽이 낮아 아파트 청약 낙첨자들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1688-8009)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남주기자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